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MISSION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ACHEON JOONGANG CHURCH

written by

MIN SANG CHO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Ah Young Kim

Sunil Kim

Seyoon Kim

March 1, 2008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MISSION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ACHEON JOONGANG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MIN SANG CHO

MARCH 2008

지역교회의 효과적인 선교 활성화 방안:
마천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아영 교수

조민상

2008년 3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Mission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acheon Joongang Church

Min Sang Cho

Doctor of Ministry

200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probes the missionary nature of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Macheon Joongagan Church, which emphasizes the revitalization of mission as her main task to the around local community and global area. The mission of a local church shall be taken into account with the light of the main task of the people of God.

First and foremost, the theological and biblical foundation of the church mission is addressed. The church can be identified herself with the missionary work because the ecclesiastical community, in her nature, is driven toward mission as a main duty. The motivation and purpose of church mission will be investigated with biblical foundation of the work. Furthermore, the church should understand a local community for mission from the beginning of her existence.

Second, the practical program of Macheon Joongang Church in terms of mission and its revitalization will be introduced as a model case. In this part, the history and the real mission-related ministries of this church will be introduced and analyzed. Especially, short term mission program and mission school are two main programs for mission revitalization of Macheon Joongang Church. Many members of this church have joined this program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 of mission, church's main task.

Third, a more realistic and applicable program for revitalization of mission will be suggested for the ongoing concern and task of Macheon Joongang Church's main ministry project. Most of all, ministerial philosophy shall be

defined with the perspective of mission-focused church. Based on this strategy, various practical ministry projects will be presented and evaluated whether they are appropriate for Macheon Joonang Church to revitalize church mission to the local people and world abroad. Prayer training and meeting, evangelism, financial support, network, and edification are included in the real practices of revitalization of church mission.

The main focus and direction of Macheon Joongang Church's ministry is mission, which is also a great mandate of our Lord Jesus Christ. While the change of the culture and society, revitalization of mission shall be realized as a crucial ministerial work for a local church.

Theological Mentor: Ah Young Kim, Ph. D.

Sunil Kim,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말씀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신학을 한지 25년이 지났지만 깨닫는 것은 무지함이다. 이 무지함의 깨달음으로 인해 신학에 대한 목마름이 풀려의 문을 두드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교육기관과 좋은 교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 귀한 만남을 통하여 더욱 무지를 밝히 깨닫게 되고 목마름은 더 깊어지게 되었지만 나가야 할 방향은 점점 선명해 졌다. 갈 길을 정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본 논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꾀 흘려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지역교회가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활성화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을 방법으로 삼았다. 감사하게도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 구미시민교회의 부름을 받아 담임목사가 되었다. 새로운 교회에서 그 교회에 맞는 논문을 써야 하지만 모델로 삼은 마천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왜냐하면 마천중앙교회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선교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보면서 앞으로 구미시민교회에서 만들어 가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고서라기 보다는 앞으로 만들어 갈 연구서에 가까운 것이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빼고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섬기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신 마천중앙교회 박보범 목사님과 성도들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들 드린다. 특별히 구미시민교회의 정영화 원로목사님과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기도해 주는 사랑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바쁘다는 핑계를 일삼는 사람을 졸업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김아영 박사님께 감사들 드린다. 언제나 친절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섬겨주신 풀러사무실 직원분들에게 또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특히 오늘 이 논문을 가장 기뻐하실 분은 나의 어머니이다. 못난 아들로 인해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꿈에도 기도하던 목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늘에 가신 어머니

는 기때 춤추시리라 믿는다. 무엇보다도 내게 일생을 걸고 주님을 함께 섬기는 사랑
하는 아내와 자랑스러운 세 아들 조은샘, 조은길, 조은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8년 3월 조민상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선교의 동기와 목적	6
제 1 절 선교의 정의	6
제 2 절 선교의 동기	9
1. 순수한 동기	10
2. 불순한 동기	11
제 3 절 선교의 목적	13
1. 영혼 구원	13
2. 교회 설립	15
3. 사회의 변화	17
4. 하나님의 나라	18
제 3 장 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	20
제 1 절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사상	21
1. 모세 오경에 있는 선교사상	21
2. 역사서에 있는 선교사상	23
3. 시가서에 있는 선교 사상	24
4. 선지자들의 선교사상	28
제 2 절 신약성경에 나타난 선교	31
1.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	31
2. 바울의 선교이해	33

제 4 장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38
제 1 절 교회의 성경적 이해	38
1. 구약성경이 말하는 교회	38
2.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	40
제 2 절 지역교회의 이해	43
1.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의 이해 및 당시에 행한 선교	43
2. 지역 교회의 존재 목적	50
3. 지역 교회의 선교적 사명	52
제 3 절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 모델	54
1. 예루살렘 교회	54
2. 안디옥 교회	58
3. 빌립보 교회	62
4. 데살로니가 교회	63
제 5 장 마천중앙교회의 선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66
제 1 절 마천중앙교회 역사	66
제 2 절 마천중앙교회 선교 사역 소개	68
1. 교회학교-교등부들 중심으로	68
2. 청년부 단기 선교 사역	71
3. 선교학교	82
4. 펠리핀 선교학교	84
5. 선교 바자회	89
6. 선교 기도회	90
제 6 장 마천 중앙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제안	94
제 1 절 ‘선교적 교회론’에 의한 목회철학	94
제 2 절 성서적 선교 모델 교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98
1.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기도회	99

2. 기쁨으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전도	100
3. 아낌없는 후원	103
4. 유기적인 상호네트워크	106
5. 바른 선교를 위한 교육	111
제 7 장 결론	113
참고 문헌	117
Vita	121

표 목 차

<표 1> Vision Trip 예비학교 일정	69
<표 2> Vision Trip 예비학교 강의 시간표	70
<표 3> Vision Trip 일정	70
<표 4> 단기선교 6월 준비사항	78
<표 5> 단기선교 7월 준비사항	79
<표 6> 몽골 몽근머리트 사역 및 담당자 (1)	80
<표 7> 몽골 몽근머리트 사역 및 담당자 (2)	81
<표 8> 4기 프런티어 선교학교	83
<표 9> 5기 프런티어 선교학교	83
<표 10> 선교학교 시간표	84
<표 11> MFTC 훈련일정	8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2007년 한국교회는 1907년 대 부흥의 역사적인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과 세미나를 실시했다. 1907년의 대 부흥은 회개들 통한 한국교회 성장의 뿌리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1907년 대 부흥을 경험한 후 처음 선교사들 파송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¹⁾ 그러나 그 후 일제 강점의 절교의 역사와 동족상쟁의 비극과 피폐화된 생활로 인해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미비했다. 그런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한국교회는 대 부흥을 이루게 되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선교사들 파송하게 되었다.

1979년까지 해외파송 한국선교사 수는 93명이었다. 그런데 한국세계선교 협의회가 2008년 1월 현재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는 168개국에 17,697명이 사역하고 있다.²⁾ 이 숫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선교사들 파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198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 선교의 획기적인 증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큰 자랑이자 또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여름, 겨울 방학이 되면 수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장년들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적게는 한두 주간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돌아오는 것이다. 선교는 이제 몇몇 의식 있는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교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1) 1907년 장로회 독노회가 이기풍 목사들 제주도로 파송하였다.

2) <http://www.kwma.org/>

그런데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탈레반의 선교봉사단 인질 사건³⁾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비판은 그 수위를 넘어 반기독교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의 선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 새롭게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있게 한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회들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종교개혁 신학의 중심적인 문제였다.⁴⁾ 교황권을 구심점으로 하는 교권주의와 성직화 경향 그리고 제도화로 인해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한 가톨릭 교회는 급기야 부패와 타락의 길을 빠져들고 말았다.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 세우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절박한 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오늘 비록 그때와 다소 시대적 상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질문은 같은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교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⁵⁾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본질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 개교회주의, 권위주의, 실용주의, 비도덕주의, 형식주의 등 세상의 가치관에 유혹 당하며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참된 교회로 돌아가자”는 교회 갱신의 시대적 사명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몸부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래적 사명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즉,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비전을 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사명과 비전의 모체는 바로 ‘선교’이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며 교회의 존재 근거도 선교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격상 선교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⁶⁾ 교회는 교회가 시작하

3) 2007년 7월 19일 분당샘물교회가 주축으로 된 선교봉사단원 23명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의료봉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탈레반반군에 의해 납치되었다. 이들 중 고 배형규 목사와 고 심성민 씨 등 남자인질 2명은 살해되었다. 인질 21명은 무사하게 귀환되었다.

4) P. D. L. Avis,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이기문 역 (서울: 권콜디아사, 1987), 9.

5) 김승호, *10년 후 한국교회* (서울: 에큐메니칼 연구소, 2005), 5.

는 날부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교회는 파송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파송하는 분이 계시는 한 파송 받는 존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요하네스 블라우(Johannes Blauw)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가 참 교회 되는 것과 참 교회로서의 제 위치에 돌아오는 것은 교회가 자기 밖을 나아가는데 있는 것”이다.⁶⁾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교회가 교회다움의 바른 교회론을 정립하고 교회로서의 본래적인 사명, 즉 교회의 사명인 선교적 과제들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 그 방안을 마천중앙교회의 사례들 통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나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 전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는 활발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파송 받은 선교사와 목사들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선교위원회)으로 진행되던 선교가 많은 평신도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변화들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선교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선교 활성화 방안을 마천중앙교회들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마천중앙교회는 선교에 많은 관심이 있는 교회이다. 마천중앙교회 박보범 담임목

6)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 1988), 24.

7) Johannes Blauw, *교회의 선교적 본질*, 전재욱, 전호진, 송용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37.

사는 세계 선교 공동체(World Mission Community)⁸⁾의 이사장이고 신승철선교목사가 있고, 선교동원가로 자기들 소개하는 이용남 목사가 협동하고 있으며, 웨선교회(WEC International)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조성광 목사들 비롯하여 많은 평신도 청장년의 선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모든 결과로 마천중앙교회는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선교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먼저 1장 서론은 논문을 쓰게 된 문제 제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서술한다. 2장에서는 선교의 정의들 내린 후에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선교의 동기에 순수한 동기가 있고, 불순한 동기가 있다. 선교의 목적은 영혼구원과 교회의 설립,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장을 통하여 올바른 선교의 동기와 목적을 알아볼 것이다. 3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 교자 한다. 성경에 있는 선교사상을 구약성경에서 먼저 살펴보고,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선교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다. 4장에서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교회의 성경적인 이해를 우선으로 하여 지역교회의 이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 통해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마천중앙교회가 선교활성화를 위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천중앙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고등부와 청년회의 선교지 방문에 관하여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교학교와 마천중앙교회가 세운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행하는 선교학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마천중앙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선교 바자회와 매월 실시되는 선교 기도회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다. 6장에서는 마천중앙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에 의한 목회철학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목회철학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

8) <http://www.wmc.or.kr/> 세계선교공동체 홈페이지에서 세계선교공동체(World Mission Community)는 그 설립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000년 기독교사에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가장 많이 나타난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헌금과 영광스런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며,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World Christian)'이라 부릅니다. 세계 선교공동체(World Mission Community)는 선교에 대해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에게 미전도 종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여 3가지(기도, 선교헌금, 선교사) 총체적 선교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어난 선교동원(Mission Mobilization) 선교회입니다.

리고 성서적 선교 모델 교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지역교회의 선교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과 이론의 근거는 국내외 각종 문헌에 의하며, 실천적 모델로서 마천중앙 교회의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해 접근하고자 한다.

제 2 장 선교의 동기와 목적

제 1 절 선교의 정의

선교는 한마디로 기독교 복음의 전파를 의미한다. 선교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계시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사도들을 보내셔서 계시의 증거자로 삼으셨고 계시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 세우셨다. 교회는 계시의 증거자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으며 계시의 증거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파가 선교이다. 물론 시대마다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강조점이 다양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복음을 전파한다는 본질적 의미는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선교라는 말 자체는 원래 ‘그리스도 교회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로 중세 교회의 수도회로부터 사용된 말이다. 영어의 ‘mission’이나 ‘missionary(선교사)’는 같은 뜻의 라틴어 ‘mitto’에서 유래된 것이다.⁹⁾ 이 말이 처음 쓰일 때의 의미는 지역교회의 동치밖에 있는 외국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들 설립하는 특수한 임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지역 교회의 사제들과 구별하여 선교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선교라는 말의 본래적 어의는 국경을 넘어서 교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선교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몇 명의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존 스토틀트는 ‘선교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보내어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했다.¹⁰⁾

9) 강문석, *선교신학총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0), 29.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그의 책 *세계를 향한 증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¹¹⁾

선교는 경계선을 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 교회에 위임한 전체 과제를 일컫는다. 선교는 활동하고 있는 교회, 이웃을 위해 사는 교회, 폐쇄적이지 않는 교회, '내부로 부터 뒤흔쳐나와'(호켄다이크) 세계를 향하는 교회의 과제이다.

또한 그의 책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서는 이렇게 선교를 정의하였다.¹²⁾

선교는 복음을 자신의 본질적인 차원들 중의 하나로 포함한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와 개종을 촉구하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상적인 공동체의 산 회원들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들 거쳐서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게 되면서 선교의 의미와 내용도 구체화되어 왔다.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는 독일의 휘체롬은 선교란 더 이상 교회의 선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교'라 주장하였다.¹³⁾ 그리고 그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파송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고 보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선교 활동의 내용을 선교사들의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들을 선교활동으로 보았다.¹⁴⁾

맥가브란은 단순한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교육, 문서 활동, 사회 활동 등을 모두 선교활동에 포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0) David J. Bosch. *세계를 향한 증거*.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 2000), 30.

11) Ibid., 31.

12)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37.

13) G. F. Vicedom. *하나님의 선교*.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16.

14) Ibid., 23.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충성을 바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고무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주로써 받아들이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들이 되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전도와 정의 실천에 함께 사역하며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들이 투도록 하는 것이다.¹⁵⁾

선교의 유일한 기초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며 그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들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내린 선교의 대 명령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¹⁶⁾ 그러므로 선교의 중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게 하는데 있으며, 그 궁극적 목적이 복음을 통한 구원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¹⁷⁾

선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생동적으로 계속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온 인류와 만물에 복음을 전하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며 그의 선교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선교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행위와 인간의 신앙적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원은 인간의 영혼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놓는 동시에 인간을 자연적, 사회적인 모든 것 곧 인간적인 구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영원한 구원을 뜻한다.¹⁸⁾

이렇게 선교와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밀접한 관계들 가지고 있다. 선교를 통하여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김세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⁹⁾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출범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다른 가치들뿐 아니라 건강과 부(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부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는 구원을 오는 세상에서의 영혼의 구원으로만 추상화하거나 신령화해서도 안 되겠

15) A. F. Glasser, D. A. McGavran, *현대선교신학*, 고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50.

16) 장종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6), 22.

17)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20.

18) 이계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전망사, 1981), 13.

19)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284-285에서 요약.

지만, 그렇다고 구원이나 축복을 맘몬주의적인 혹은 순전히 물질주의적인 변영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둘째, 종말에 있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과 고난의 변증법으로 특징된다. 이 변증법적 긴장을 십자가의 신학 없이 변영 일변도의 신학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구원의 종말론적 유보를 무시하는 것이요, 구원을 몇 가지 물질주의적 가치들로 축약시켜 버리는 것이며, 예수의 사랑의 이중 제명과 상반되는 삶(즉 맘몬주의와 이웃에 대한 착취)을 부추기는 것이다. 교린도교회의 열광주의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들을 늘 상기시켜 주고 있다.

셋째, 복음 선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제자 됨의 대가, 이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로지 주 예수의 사랑의 제명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이미 성취되었고 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 - 다른 사람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도- 의 현재적 실현을 체험할 수 있고 구원의 종말적 완성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주 예수의 사랑의 제명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결국 선교의 정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선교의 동기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선교를 하는 동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동기가 어쨌든 선교 자체를 낭만적으로 보려고 한다. 선교사를 선발 할 때도 그의 자질이나 자격을 무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든 교회이든 선교는 무엇보다 선교의 동기가 중요하다. 선교에는 불순한 동기로 사역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선교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베르카일의 선교 동기를 바탕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의 동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⁰⁾

1. 순수한 동기

선교하려는 사람은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는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선교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교의 순수한 동기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선교의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응답한 것이어야 한다. 선교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인 선교의 대 위임령(마 28:18-20)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쉬는 마태복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 그리고 암시적으로 그 자신의 시대와 그 후 시대의 공동체들의 선교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한다.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인 “보낸다”, “가라”, “전파하라”,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화평케 하라”, “증인이 되라”, “가르치라”, “제자들 삼아라” 등과 같은 용어들은 분명히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선교의 동기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발로여야 한다.

두 번째 순수한 동기로, 사랑과 자비에서 시작되는 선교이다. 선교 자체가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만든다. 사랑과 자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선교는 머지않아 좌초하고 만다.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고 느끼는 자들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 곳곳에 어떻게 자신이 교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울의 선교 동기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였다. 보쉬는 관심과 감사와 책임 의식의 관점에서 바울의 선교 동기들 찾고 있다.²²⁾

세 번째 선교의 순수한 동기는 영광의 동기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요 17:1,4). 베르카일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는 분으로 알게 하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열정,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 선교 동기의 핵심²³⁾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교는 나의 명예나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선교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

20) J. Verkuyl, *현대 선교신학개론*,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6), 254-271

21)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139.

22) Ibid., 215.

23) Verkuyl, *현대 선교신학개론*, 258.

는 것이다. 책임을 다해 일하고도 자신은 무의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선교사이다 (눅 17:10).

네 번째 선교의 순수한 동기로 종말론적인 동기이다. 이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세례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외쳤다. 세례요한은 종말론적인 즉 완전히 실현된 종국적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²⁴⁾ 선교는 종말이 가까워 오에 따른 긴급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종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즉시”라는 말을 30번씩이나 사용²⁵⁾하고 있다. 긴급함을 가질 정도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사들이 이런 순수한 동기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교를 지원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선교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선교 동기가 순수한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

2. 불순한 동기

선교사들은 다양한 동기로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사람들은 선교 자체가 선한 것이기에 어떠한 동기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불순한 동기가 복음의 참된 의미들 퇴색시키고 이방인들로 기독교에 대항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례들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선교에 대한 불순한 동기로는 첫 번째, 제국주의적 동기이다. 이것은 그동안 서구선교가 비판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역사적으로 선교가 제국주의 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많은 대륙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왔던 기독교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 베르카일도 전 세계가 식민지를 확장해 갔던 19-20세기 동안 제국주의적 동기가 식민지 확장을 동반하는 선교사업 사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시기에 선교사들은 실제 식민지 관료들과 밀접하게 협력하였다.²⁶⁾ 그들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선교는 다분

24)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서울: 도서출판 교회목회, 1995), 163.

25) Ibid., 259.

26) Ibid., 203.

히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었던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불순한 동기로, 문화적인 동기들 들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문화와 복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선교사가 복음과 함께 자신의 문화들 동시에 현지인들에게 이식하는 경우이다. 한국선교도 다분히 선교와 문화이식이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문화적인 동기로 선교할 경우 선교사는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 현지 문화들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복음이 우월한 것이지 문화의 우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만을 전하고 문화적인 차이는 현지인 스스로 깨닫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문화의 웃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세 번째 불순한 동기로, 상업적 동기들 들 수 있다. 리빙스턴이 “나는 무역과 기독교 활로들 뚫기 위하여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 기독교와 상업주의의 연결을 두둔하는 이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고 있다.²⁷⁾ 선교사들은 합법적인 것이라면 복음을 위해 무역이나 상업을 해도 괜찮다고 믿었다. 리빙스턴도 이런 목적으로 회사들 세우기도 했지만 한계를 느끼고 아프리카인들의 진정한 필요들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네 번째 불순한 동기로는 교회 식민주의들 들 수 있다. 교회 식민주의는 한국교회에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교회 식민주의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에 응한 그들 자신의 교회들 형성할 자유들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교회라는 모델을 원주민 교회에게 심어버리는 선교사들의 강요²⁸⁾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상당 부분도 서구화된 교회 식민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선교도 초기 서구 선교사들과 같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현지에 이식하는 오류들 범하고 있다.

이처럼 선교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릇된 동기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단지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동기와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27) Robin Thomson, *세계선교출발*, 이득수 역 (서울: IVP, 1992), 49.

28) Verkuyl, *현대 선교신학개론*, 263.

제 3 절 선교의 목적

선한 동기로 선교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왜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교는 막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 선교는 어느 순간에도 그 목적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선교의 목적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들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영혼 구원, 교회 설립, 사회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로 나눌 수 있다.

1. 영혼 구원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있다. 영혼구원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회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교지에서의 열매는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와 동일하게 생각되어지곤 한다. 이것은 몇 명이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지가 바로 선교의 성과라고 보는 경향 때문이다.

회심이란 종교사적으로는 “삶에 새로운 능력의 도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교학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한다.²⁹⁾ 회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심이 선교 역사 가운데 정치, 문화적으로 수단화되어 옴으로 오늘날 회심을 서구 제국주의의 유산이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회심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³⁰⁾ 회심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회심의 중요성 때문에 회심을 강요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회심을 경험하기 힘들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세워졌던 초기부터 서구 특히 미국선교에 영향을 받아 회심을 중요시하고 신앙고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교회는 17세기 스웨너나 프랑케의 독일 경건주의 신학의 개인 영성과 회심을 중요시하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 부른 사람을 의롭게 하

29) Karl Muller, Theo Sundermeier, *선교학사전*,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역 (서울: 다산 글방, 1999), 828.

30) 한국일, “선교와 회심,” *선교와 신학* 9집 (2002), 38.

시교 의롭게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신다는 구원론을 믿는다. 그러나 구원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³¹⁾

그러나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심과 개종과의 차이들 아는 것이다. 회심과 개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회심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전 인적인 관점에서 신앙으로 몰아서는 행위들 말하는 것이지만 개종은 회심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개종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순수한 동기뿐 아니라 나름대로 다양한 동기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종이 회심사건과 함께 일어나지 않을 경우 복음은 변질되고 선교는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다면 왜 회심 없는 개종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죄에서 돌아선 순수한 신앙의 발로가 아닌 왜곡된 회심 때문이다. 왜곡된 회심이란 잘못된 동기로 회심한 경우를 말한다.

왜곡된 회심은 먼저 정치적 이유 때문에 회심한 경우이다.³²⁾ 정치적 회심은 다 분히 강요된 회심이다. 이것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되면서 나타났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기독교가 권력과 결합되면서 타락과 변질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갖지 않으면 정치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교도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정치적 회심은 정치권력의 압박이나 정치세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개종한 형태로서, 만약 회심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 신분적, 경제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개종한 경우를 말한다. 신앙에 의한 자유로운 결단 대신에 교회와 정치적인 힘의 결합으로 강요된 회심은 그 본질을 왜곡하고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³³⁾ 사실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한 이유는 단지 신앙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 배경을 가진 제국 사람들의 정신적 통일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로마제국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영토를 확장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개종시켰다. 그래서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닌 침략의 종교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회심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회심이라는 면에서 정치적 회심과는 구별된다.³⁴⁾ 문화적 회심은 현지인들이 선교사의 문화적 동경심 때

31) 이용원, "선교적 관점에서 본 회심과 개종," *선교와 신학* 9집 (2002), 16.

32)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91-100

33) 한국일, "선교와 회심", 43.

문에 회심한 경우를 말한다. 현지인들은 자신의 문화보다 더 우월한 선교사의 문화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종을 한다. 이것은 문화들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회심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가겠다는 결단이다. 그래서 회심이란 자발적이고 순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회심을 통한 영혼 구원만이 선교의 목적은 아니다. 예수님도 단지 영혼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먼저 치료들 베푸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의 필요, 육체의 필요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선교 목적도 단지 영혼구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영혼과 육체의 구원까지도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교회 설립

교회가 선교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교회들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도 강조했지만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독일의 선교학자인 칼 하르텐슈타인은 “교회의 본질은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참여와 세계구원을 위한 그의 선교참여이고, 교회는 선교들 통해 존재하며,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며 유일한 존재 이유” 라고 정의했다.³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의 약속이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스 쾨른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의 다가오는 완성과 영광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의 신앙 안에 함께 모였을 때 교회는 존재하게 된 것³⁵⁾ 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나 선교는 초대교회 자신의 의지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령

34) 한국일, “선교와 회심,” 43-45.

35) 신동우, *선교학: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3), 90-91.

36)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181.

의 의지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갔고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의 희랍어 ‘에클레시아’는 ‘에크’(밖으로)와 ‘칼레인’(부른다)의 합성어인데 이 말은 공공업무들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한 전령으로 ‘불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다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에클레시아적 교회는 단지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루터는 교회들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즉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체와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들 나누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³⁷⁾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을 위한 장소 또는 예배당의 의미들 지닐 뿐이다.³⁸⁾ 선교는 교회들 설립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포함하고 있다.

서구 식민주의가 선교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식민주의의 분위기를 타고 세계 곳곳에 가장 많이 세워졌고 어느 국가에서든 교회들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에서 순교자의 피의 자양분으로 세워졌다는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것은 선교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들 구원의 방주처럼 개인적 평안과 위로만을 구하는 친교 공동체로 변해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빠져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수호신으로 전락시키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사회정의들 무시하면서 결국 스스로 멸망해 갔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자신들을 택하신 목적인 선교의 사명을 잃어갈 때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져가고 자멸해가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을 구체적인 역사 앞으로 파송하여 자기 나라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공동체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다.³⁹⁾

37)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117.

38)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13.

39) 신동우, *선교학: 이론과 실제*, 93.

교회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 가운데에서는 전 세계로 나아가 선교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자국이 아직 다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꼭 해외로 나가야 하는가 묻는다. 그들은 해외로 나가는 선교비를 국내에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고 믿는다. 이미 전 세계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선교는 자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생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 선교에만 힘썼다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거나 어떤 특정한 민족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보편성이야말로 교회의 표지이다.

교회는 본질에 있어서 선교적이며,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이며, 성례와 표적과 도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류의 통일과 소망과 구원의 가장 확실한 씨앗인 것이다.⁴⁰⁾

3. 사회의 변화

선교의 목표로서 사회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등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구속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규제로부터의 해방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면에서 선교적 목표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신명기와 시편은 사회적 약자와 가난, 과부, 고아뿐 아니라 구조적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후로 기독교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경향을 띠어 왔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로 전수되었고, 이러한 경향 아래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구속될 수 없는 것이기에 세상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분화는 계몽주의 아래 더 깊어지게 되었다.⁴¹⁾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선교의 목표로 사회의 변화를 언급한다. 사회 정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심 가운데 하나였다. 계몽주의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참혹한 전쟁과 약자의 강자에 대한 예속과 식민주의로 인한 교훈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 복지와 정의들 위한 사역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속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요청한다.⁴²⁾

40)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576.

41) Ibid., 594.

4.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전적인 구원에 있다. 즉 구원사역은 세상을 향하여 통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전적 선교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⁴³⁾ 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68년 WCC 읍살라 대회에서부터 세계교회 협의회는 단지 영혼구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 말하면서 선교들 단지 영혼구원에 국한시켰던 기존의 선교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봉사라는 세상에 대한 책임도 함께 포함시키고자 했다.

1982년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개신교,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치하여 선언하기를 “그 소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쁜 소식, 용서, 희망,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고 정사와 권세, 죄와 불의들 책망하며, 고아와 과부들 위로하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사망의 한복판에 있는 생명을 경축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⁴⁴⁾고 했다. 이 말은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단지 복음의 선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의들 책망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천국비유에서도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곧 사회적 약자들 돌봄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들 받은 이유가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들 돌보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교회는 책, 케이블TV, 인터넷, 각종 예배와 성경 공부 등 말씀의 선포는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각종 대중미디어들도 기독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취준다. 교회들은 부흥회와 전도 초청주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사는 데는 무관심하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들 보고 하나님

42) Bosch, *번화하고 있는 선교*, 596.

43) 김영동, *교회들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44.

44) 박근원, *전도와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86), 18.

을 알게 된다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한다. 복음이란 단순히 언어로 선포되어진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선한 행위로 선포되어진 말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⁴⁵⁾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을 사회정의 실현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칼 물러의 말대로 이 땅의 가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지 않은 한 선포는 복음의 풍자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향하지 않는 정의들 위한 투쟁 또한 기독교적 정의 이해의 풍자화에 불과한 것이다.⁴⁶⁾ 민중이든, 여성이든, 노숙인이든, 장애인이든 사회정의들 위한 봉사와 투쟁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전체적인 구원의 실현과 선포로서, 인류를 강타하는 모든 죄악과 슬픔을 파괴하여 인간의 필요들 그 전적인 범위에서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 폭과 범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나라는 이 땅 뿐만 아니라 하늘도 포함하며,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 차원에서의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선교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선교에 헌신하려는 자나 교회는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다.

45) 한국선교 신학회,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95.

46) Karl Muller, *현대선교신학*, 김영동, 김은수, 박영환 역 (서울: 한들, 1997), 119.

제 3 장

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

선교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으로서 성경에 철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을 떠난 그 어떠한 선교사역도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없다. 신구약 성경은 ‘선교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는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다. 즉 인간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과 목적을 제시하는 책이다”⁴⁷⁾라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화 할 책임을 부여하고, 선포할 복음을 주며, 그 복음을 선포할 방법을 말해주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약속해 준다.⁴⁸⁾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세계 복음화와 성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 없이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열방에 가져 갈 복음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가져 갈 근거도 없고, 그 과업을 어떻게 착수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고, 성공하리라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명령과 메시지와 모델과 능력을 주는 것은 성경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여 이것을 되찾도록 노력하자. 성경의 출정 명령을 잘 듣고, 그 메시지들 파악하며, 그 지시들 따르고, 그 권능을 신뢰하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그것을 알리자.⁴⁹⁾

47) Arthur F.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임운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22.

48) Ralph D. Winter, Steven C. Hawthorne, eds., *미션 퍼스펙티브*, 정옥배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0), 42.

49) Ibid., 46.

성경은 선교의 책이기에 선교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 1 절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 사상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선교 개념을 찾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기초로서 선교의 명백한 근거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며, 여호와께는 선교적인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다. 성경은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교의 가장 심오한 기초 원리가 된다. 이렇게 창조 사상은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할 선교의 기초이며, 인간의 타락 사건은 선교의 원인이 된다.

구약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오실 메시아를 아는 구원 지식(saving knowledge)을 갖게 하는 것이다.⁵⁰⁾ 유대인들이 이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구약에서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1. 모세 오경에 있는 선교사상

모세 오경은 창조 기사로 출발한다. 이 창조 기사는 선교적 대 사명을 암시하고 있다. 아서 글라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조 기사는 온 우주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전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⁵¹⁾

오경은 율법서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오경에서 우리는 온 세계 이방 나라들과

50) Walter C.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4.

51) Ibid., 52.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오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 전 민족에게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그 소명 자체가 선교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고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다.⁵²⁾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세계 구속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구성하는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신적 약속이 그의 가계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이다. 아브라함의 가계에 의하여 정한 때에 여자의 후손이 탄생되고 인류 가운데에 구원 사역을 수행케 되는 것이다.⁵³⁾

모세 오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만큼 비중이 있는 사람이 모세 오경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한 지도자이다. 성경에는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과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에 대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과 왕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

52)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27-28. 창세기 12장 2-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들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들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들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대하여 월터 카이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 약속의 땅의 "백성들" 또는 "족속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축복이다. 이 약속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창 18:18; 22:18; 26:4; 28:14). 창세기 12장 3절과 28장 14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가족"은 70인경에 사용된 헬라어 번역이다. 이것은 주로 "모든 족속들"을 뜻하는 "pasai hai phulai"이지만 동시에 여호수아서에서는 "집안"(households)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집단을 축복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가정과 같은 작은 집단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각 개인들, 집단들, 족속들,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3)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88. 이 사실에 대하여 아더 글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들의 선택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족보들 계승하는 역할이 주어졌다(창 3:15; 갈 3:16).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선택된 것은 영원한 구속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들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애굽 사람들이 나들 여호와인줄 알리라”(출 7:5,17; 8:22; 14:4,18). 출애굽기 19장은 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기록한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출 19:14, 16).

모세는 재앙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은 알리이다”(출 9:29)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 신학자 로울리(H. H. Rowley)도 “모세야 말로 최초의 선교사”로 묘사했다.⁵⁴⁾

또한 출애굽 때에 중대한 잡족이 이스라엘을 따랐으며(출 12:38), 모세의 처는 미디안 사람(민 10:29)과 구스 사람이었다(민 12:1). 할례 의식은 이방인에게도 행해졌다(출 12:48). 특별히 할례 의식은 규칙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제공하셨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⁵⁵⁾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입된 것은 장차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

2. 역사서에 있는 선교사상

역사서에서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주위의 가나안 나라들에 의하여 동화되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특수성을 유지하며 분리되느냐의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여호수아서의 기브온 거민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 백성들의 제사에 사용할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거룩한 사역에 수종 들었고 이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도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나 롯과 같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나아만을 개종시킨 이스라엘의 한 계집

54) J. H.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이개범 역 (서울: 나단출판사, 1988), 19.

55)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36.

종의 이야기나 사르밧 과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엘리야의 이야기는 구약적 선교의 좋은 모델인 것이다.

이방인이 유대인들 중에 거하면서 종교적으로 유입된 사례는 이방 나라에서는 없는 일로 알려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다.⁵⁶⁾

구약의 역사서에서 선교사상의 절정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잘 나타난다. 이 기도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도로서 솔로몬 자신의 소원이나 욕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로서 성령의 감화와 인도로서 드린 기도이다. 그의 기도에서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만민의 집”으로 언급되었다(왕상 8:41-43).

포로지 바사에서 에스더들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인하여 이방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존재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온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되어야만 했다.

3. 시가서에 있는 선교 사상

시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인간의 고백과 기도들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특이한 점은 시편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이 시편에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만민을 향한 보편적 신앙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다. 이 점은 선교의 목표들 연구함에 있어서 시편이 갖는 중요성이기도 하다.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만민을 향한 보편적 신앙에 대한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몇 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편 2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반역에 대한 부

56) Edward J. Young,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Oxford: James Clark Co., 1958), 61.

분이다(1-3).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다(4-6). 세 번째 부분은 열방에 대한 선교의 내용이다(7-9). 이 부분은 보편적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네 번째 부분은 열방의 순종에 대한 권유로 되어 있다(10-12). 이 부분은 열방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열방을 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다.⁵⁷⁾ 시편 2편은 그 자체가 구속사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와 메시아 대망, 그 구속의 자리들 향한 초청과 복의 약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시편 2편은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진노로부터 벗어날 것을 전파한다. 이러한 만민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 사상은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시 7:7) 라고 외치는 시편 7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시편 33편의 내용은 선교의 목표들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 지어다”(시 33:8.)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 활동하신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총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시 33:5, 7)는 내용을 통해 만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시편 66편과 67편 그리고 68편은 출애굽 사건이 지나는 만민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의미와 결국은 만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한다. 시편 66편은 유월절에 노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스라엘 회중이 모이는 이 중요한 절기에 열방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된다. 그러기에 이 시편에 수록된 출애굽 사건에 대한 회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만방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만민을 초청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⁵⁸⁾

시편 68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찬양이 나타난다. 이것은 그의 성전에서 살아

57) Roger E. Hedlund, *성경적 선교신학*, 송용조 역 (서울: 서울 성경학교, 1990), 24.

58) Ibid., 133.

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도록 열방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선교적 의미들 지닌 찬양이다. 이러한 찬양은 이스라엘의 구속이 열방의 구속을 위한 근거임을 드러낸다.

시편 87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대적들인 바벨론과 블레셋, 두로의 회심을 찬양하고 있다. 구원과 회심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시편 98편은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분명히 나타내셨도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2-3)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도가 열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민족은 공평으로 모든 백성을 판단하실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소집된다(4).

시편 117편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시편 145편은 선교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사역을 다른 자들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4). 또한 그 위탁의 내용이 매우 선교적인데, 세상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와 위엄과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12).⁵⁹⁾

위에서 살펴보았던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시편은 대단히 선교적인 책인 것이 분명해 졌다. 특별히 시편에 나타나는 만민을 향한 소망과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자연 속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은 시편이 얼마나 선교적인 내용과 목적을 담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구약성경 중에 시편을 가장 위대한 선교 서적이라고 조지 피터스(George Peter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⁶⁰⁾

‘찬양시가 탁월한 선교적 설교’라는 것은 심오한 사실이다. 시편 내에서 세계의 열방에 대한, 보편 구원론적 어조가 갖는 175회 이상의 언급이 그러한 선교적 설교들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구절 가운데 다수가 열방에 구원의 소망을 안겨 주고 있다...그렇다. 시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서적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을 보는 이가 매우 드물지만 말이다.

59) Hedlund, *성경적 선교신학*, 132-135.

60) George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Moody, 1972), 115-116. Walter Kaiser,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의도," *목회학 신학*, 2002년 8월호, 105에서 개인용.

윌터 카이저는 시편 67편에 초점을 맞추어 시편에 나타난 선교사상을 말하고 있다. 이 시편은 흔히 '구약성경의 주기도문'(Pater Hemon=우리 아버지 Our Father), '주기도문' 시편이라 불린다. 이 시편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즉 그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⁶¹⁾ 그러나 이 시편의 주제는 아브라함 약속이지만 그 핵심 구절들 가운데 하나는 선대 성경의 신학인 아론의 축복(민 6:24-26)으로부터 차용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던 축복을 지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편을 선교 시편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주제 확대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무슨 목적을 위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로 이 축복이 확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편 67편 2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그 목적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고 것처럼 비상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셨던 것이다.⁶²⁾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귀염둥이, 총아들이었기 때문이거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 방식이었다.

윌터 카이저는 시편 67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의도를 세 가지 이유로 말한다.⁶³⁾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만사들 그토록 훌륭하게 성취하시는 놀라운 구세주들 찬양하는 데 동참하기 원한다는 것이다(시 67:3).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런 송영(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시편의 취지라는 점이다. 송영은 인간 삶의 선택적 요소가 아니다. 또한 송영은 주님을 아는 자들, 신자들에게만 요구되는 사

61) Kaiser,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의도," 105.

62) Ibid., 106.

63) Ibid., 108.

항이 아니다. 이 지구 위의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 선호도와 관계없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분이요 언젠가는 그들 모두가 면대해야 할 분이시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신다는 것이다(시 67:4). 하나님은 사법적, 정죄적 의미에서의 재판관이 아니며 의로 다스리시는 제왕적 통치자이다. 그는 시편 23편 1절에 위대한 목자로 묘사되어 있듯이 열방의 목자이다. 시편 72편이 약속하듯이 하나님께서 해가 비추는 곳은 어디든지 통치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상 모든 민족의 주님과 구주로 인정받아야 할 이유는 가일층 명백하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이다(시 67:6-7).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토록 놀라운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든 신자들에게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검증해 보라고 요구하신다. 확실히 이스라엘 땅은 압도적으로 많은 소산물을 내었고 창고는 차고 넘쳤다. 이것은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4절-26절에 기록된 아론과 제사장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시편 기자들은 온 땅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재삼 재삼 요구하고 나선다(시 47:1; 67:3,5; 100:1; 117:1). 이스라엘의 이 고대 시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말하고 선포하고 알리라고(시 9:11; 105:1), 그리고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동참하라고(시 18:49; 96:2-3) 이스라엘을 향해 가일층 직접적으로 촉구한다. 시인들 자신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나선다(시 57:9; 108:3). 그리할 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께 앞드려 경배하는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자들은 선언한다(시 22:27; 66:4; 86:9).⁶⁴⁾

4. 선지자들의 선교 사상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공레를 받았다(왕상 17:8-24).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을

64) Kaiser.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의도." 113.

공경하는 사람들을 두셨던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군대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선교하였다(왕하 5:2-15).

이사야 선지자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사 2:2-3).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방에게로 나아간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열방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도덕적 유일신교의 구심력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왕이신 분의 영광과 능력에 이끌려서 찾아오는 것이다.⁶⁵⁾ J. H. Kane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월터 카이저는 반대한다. 이스라엘은 "주의 종"으로 임명되었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명이 명백하기에 이스라엘의 사명을 수동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구심적 선교 역할 정도로 제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민족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을"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이 땅의 모든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언약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그 언약의 축복을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⁶⁶⁾

이렇게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는 선교의 본문으로 알려질 정도로 선교의 사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 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들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예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방의 갈릴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빛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고 하였고, 이어서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방에 대한 선교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요나서에서는 이방 나라 특히 세계 최대의 도시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 이방인의 심판과 구원을 의도하시는 선교적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현존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선교사로 니느웨에 파송하여 입으로 직접 증거하게 하신 점에서 신약시대 이전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선교활

65)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35-36.

66) 참조,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99-100.

통이라고 할 수 있다. 요나서들 통하여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을 얻도록 한 것으로 여호와와 구원이 한 국가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유대인들의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⁶⁷⁾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마음을 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열방의 어두운 영적 현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가진 보화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도들 높여 가며 선포하기 시작했다.

선지서의 선교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이방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먼저 종말적 사건으로 묘사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위대한 집합지가 되는 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종말의 때는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주시며(욘 2:28-32)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신다(합 2:14).

결국 선지서의 선교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성취될 사건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셨다(창 3:15). 이방인들이 사모하는 구원자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아니라, 만인을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이다.⁶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나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셨다. 이스라엘은

67) 참조,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101-109. 월터 카이저는 요나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 이야기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요나들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직접 던지는 질문인 "내가 이 큰 성읍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4:11)는 이 책이 선교적인 책임을 분명히 한다.

68) Young,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90-91.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을 말씀하였고 구약의 고난의 종을 통하여 회복될 것에 대하여 구약학자 영은 그 고난 받는 종인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동일시하였다.

삶과 행실과 선포들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그 사명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의 포로가 되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 2 절 신약성경에 나타난 선교

신약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선교의 책이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는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 선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보내셨으며(요 3:16), 또한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명령을 하신 후 승천하셨다. 승천 후 제자들이 요엘서의 예언대로(욘 2:28-32)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성령은 선교의 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들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신약의 4복음서는 선교적 설교의 산 기록이며, 사도행전은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며, 바울의 서신서는 선교의 기록이다.

1.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

예수의 생애와 사상 및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선교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의 출생은 온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사 49:6).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마 1:21; 눅 4:18-19). 예수의 고난과 승천은 후대에 선교 메시지의 중심이 되었다. 예수는 죄 사함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고 피 흘리셨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이 된다.

4복음서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한다. 동방 박사의 방문(마 2:1-12), 가버나움 백부장의 방문(마 8:5-13), 헬라인 방문(요 12:20-23), 사마리아인들의 집단 개종(요 4:39)은 이방인들의 자발적 도래를 예언한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4복음서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께로 나아오는 구심적 선교를 말함과 동시에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원심적 선교를 말한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마 15:21-28)은 예수님의 선교가 원심적이며, 또 구원이 이스라엘

에서 이방인으로 향한다는 상징이다.

바빙크(J. H. Bavinck)는 선교에 대한 복음서의 견해들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나는 선교 개념 자체는 구원에 대한 메시아적 기대로부터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파생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구약 예언은 메시아적 구원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함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한 이방인이 자발적으로 나아옴과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로 생각하였다. 이 메시아적 구원은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예언을 두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누가복음 4장 21절)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큰 구원의 강한 근거였던 것이다.⁶⁹⁾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들 위하여 왔노라"고 하였다.⁷⁰⁾ 예수는 자신에 관해 언급할 때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자(使者)로서 묘사한다.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왔음을 말하거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도록 그들 보냈음을 말한다(요 7:29). 예수의 일생은 선교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선교의 대명령이다. 4복음서는 모두 선교의 대명령으로 끝난다(마 28:18-20; 막 16:15; 눅 24:47-49; 요 20:19-23). 이 명령에 기초하여 요하네스 니센은 각 복음서마다 독특한 해석학적 관점에서 선교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은 "제자 만들기"(교회성장)에만 집착하는 어떤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방식의 명령이 아니라 선교(교회생

69) J. H. Bavinck, *선교학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58.

70) 복음 전도 활동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은 다함이 없었다. 니고데모들 밤에 만나신 일과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기사는 전도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그분의 열정을 보여 준다. 이 만남은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 유의한 교훈을 주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양한 전도 방법을 보았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웠다. 4장에서는 대조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가가 문화적 편견을 넘어 영혼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전도사역에 대한 신실함을 본받아야 한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 가는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수들 따를 것을 권유하는 일종의 초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들 따르는 것은 결코 "십자군"의 행위, 즉 다른 종교나 문화와 싸우는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과 무력함 속에서 수행되는 사랑과 봉사의 행위들 의미한다.⁷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명령은 선교의 필요한 요소들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명령은 독자들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상선교 이야기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신자들의 증거는 무관심한, 심지어 공개적이고 적대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어려움과 핍박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마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방법들을 말하기 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권력과 위신과 지위가 아닌 섬김과 고난과 희생으로 부름을 받는다.

누가의 선교신학에서는 성령의 사역, 회개와 용서의 중심성,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복음과 문화의 만남과 같은 주제가 중요하다. 특별히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눅 4:18-19; 24:49).

일반적으로 선교는 비신자들을 향한 ‘보냄’ 혹은 ‘떠남’으로 정의되지만 요한의 선교는 ‘보냄’과 ‘모임’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양상은 성육신의 개념에 의해 결합된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전되고 그들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개념을 발견한다. 제자들은 예수에 의해 또한 보내어진다(요 17:18).

2. 바울의 선교 이해

바울은 처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⁷²⁾부터 멀리 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

71) 참조. Johannes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최동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33-159.

72) 김세운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의 복음과 이방 선교에의 소명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5-16절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 내 속에서 나타내 시기들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

명을 받았다(행 9:15; 22:21; 26:17; 갈 1:15-16; 2:8-9). 바울은 그리스도들 만난 직후에 다메섹에 있는 메시아 공동체를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이라 부르며 바울을 사랑스럽고 관대하게 맞아주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기름을 붓고 시력을 되찾게 하여 주었다. 이것은 바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고, 신앙 공동체의 생활과 친교 가운데 편입되었을 때,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과거 생활과 바리새파와의 관계들 마지막으로 청산하고 물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들 따라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행 22:15). 바울은 새로 맡은 직분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였다.

바울은 선교사로 임명받기 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서 1년간 시무했다(사도행전 11장26절;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다. 그는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하면서 교회들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 신약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지상명령을 완전하게 이해한 최초의 사도이다. 그는 선교가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것을 수반한다고 보고 지상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였다(골 1:28).⁷³⁾ 바울에게 있어 선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교를 위해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의인으로 불리는 한 선물에 기초하고 있다.⁷⁴⁾

바울의 선교사역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사역으로서 바울은 때와 장소들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며 화목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사도행전으로부터 우리는 바울이 거의 독특한 형태의 순회설교가(itinerant preacher)였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⁷⁵⁾ 둘째, 교육사역으로서 바울은 결신자들 얻으면 세례를 주고 그들을 모아 교회들 세웠으며 그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책임성

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는 고백에서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김세운, *예수와의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110.

73)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70.

74)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67.

75) Ibid., 181.

이 있으며 생산적인 성도가 되도록 인도했다.⁷⁶⁾ 셋째, 성령에 의한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들 따라서 불리우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들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성령의 은사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고 성령에는 신령한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복음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넷째, 신유들 통한 선교사역으로 바울을 통해 귀신이 나가고(행 16:16-18),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행 20:9),⁷⁷⁾ 스스로도 멜리데섬에서 독사에 물려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자 그들은 놀랐고,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되어 복음을 전했다(행 28:1-10).

바울에 있어서 선교 전략은 인간의 관찰과 경험에 근거한 활동 계획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⁷⁸⁾ 구체적으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 기지와 긴밀한 관계들 유지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출발지와 종착역이 되었으며 이방세계의 선교 자원의 보급지로 바울을 도왔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도 긴밀한 관계들 유지하고 있었다. 바울은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와 긴밀한 관계들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다.⁷⁹⁾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교동, 문화, 상업, 정치, 종교에 관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에 기독교의 공동체들 세웠다.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이 전략적 중심지들로부터 주변의 시골과 작은 도시로 전파될 것이라는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⁸⁰⁾

둘째, 회당 중심의 선교이다. 바울은 대도시들 다니며 선교 했는데 각각 도시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즉 유대인 신분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각 도시의 회당을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회당은 선교적 측면에서 매우

76) 장종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83.

77) 창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사한 유두교가 살아났다.

78) Kane, *기독교 세계 선교사*, 91.

79) Ibid., 101.

80)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82.

중요하다. 회당은 이방인의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어서(행 21:28-29)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될 수 없는 반면에 회당은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⁸¹⁾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수용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당을 찾게 되었다.

셋째, 자비량 선교이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장막 짓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에서(살전 2:9), 고린도에서(행 18:3; 고전 4:12), 에베소에서(행 18:11-12; 20:34)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동역자와 함께하는 선교이다. 사도행전에는 '우리'⁸²⁾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선교 사역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협력하는 사역을 말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로 불화(행 16:36-41)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동역 선교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단독 선교가 아닌 팀 선교를 하였다.⁸³⁾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다. 이 서신들에는 그들을 도왔던 상당히 많은 명기된 혹은 무명의 동역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외지 선교를 위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행 19:22). 바울은 필요에 따라 동역자들을 잘 활용⁸⁴⁾하였고 그 결과 바울은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다섯째, 토착화 사역이다. 바울은 상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전 9:19-22). 실제로 복음은 진공상태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융통성을 갖고 창안될 필요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다.⁸⁵⁾ 바울은 기독교

81)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서울: 은성출판사, 1995), 118-119.

82)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7. 바울 전도단이 그들의 시대에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복음"이었다(살전1:5) 바울은 "나" 또는 "내게"라는 말보다는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라는 말을 선호했다. 그가 쓴 데살로니가전서들 보면 자기를 나타내는 단수 대명사는 4회만 나오는 데 반해, "우리"를 표현하는 복수 대명사는 90회나 나온다. 9.

83)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74.

84)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82. 바울의 동료는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바나바, 실라 그리고 특별히 디모테를 포함하는 가장 친밀한 집단이다. 둘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와 같은 "독립적인 동역자들"이다. 셋째, 지역 교회의 대표들이다. 교회들은 이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하도록 파송하였다.

85) 서정운, *교회와 선교*, 36-37.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토착화의 효과적인 방편인 적응의 원리들 사용하여 선교 명령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이방인을 구원의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전략적 기도이다. 바울은 선교를 위하여 전략적 기도를 드렸고 부탁했다. 그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위해 기도했고, 기도를 부탁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랐다. 그는 당시 자기 시대 사람들의 물질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필요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⁸⁶⁾ 바울은 개종자들에게 복음 전도가 널리 확장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라고 부탁했다(롬 15:31; 살후 3:1).

모든 신약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선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는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 선교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보내셨다.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의 책이다. 신약이 존재하게 된 것부터가 초대교회의 선교적 메시지들의 생생한 기록들이며, 서신들도 선교사역 자체의 참되고 실제적인 수단이요 도구였다.

신구약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구약은 신약의 기초로서 선교의 명백한 근거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구약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며, 여호와와 선교적인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영적, 물질적 행복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의 선교는 상호 연속성이 있으며, 구약 성경은 기독교 선교들이 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86)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76.

제 4 장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제 1 절 교회의 성경적 이해

1. 구약성경이 말하는 교회

구약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모세들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 모세의 계약(the Mosaic covenant)⁸⁷⁾과 광야에서의 사십년 생활은 히브리 신앙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관하여(교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워드 스나이더는 말한다.⁸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서 우선적으로 교회의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교회들 조명하는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결과로 교회들 이해하는 것이다.⁸⁹⁾ 아담과 이브가 사람이 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창 1:28)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창 12:2)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대로 시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내시면서 “내가 너로 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출 6:7; 신 7:6 비교)고 말씀하신다. 이 주제는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데 이러한 주제

87) 구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낱말에 해당되는 용어는 '카할'(kahal)이다. 카할이라는 말의 본뜻은 '부른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이다.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하여 모인 그 모임이 곧 카할이라고 할 수 있다.

88) 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59.

89) Ibid., 115.

에서 교회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구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백성'이라는 개념을 헬리어로 옮긴다면 라오스(laos)라는 낱말을 들 수 있다. 라오스라는 낱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하고 특권을 받은 종교적 위치를 강조한 단어이다.⁹⁰⁾ 구약성경에서 라오스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초와 특수성에 따른 이스라엘 국가사회이다.⁹¹⁾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교회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다.

월슨 초우는 출애굽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아 구약의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⁹²⁾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삼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 불러 가라사대 너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내용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인데, 교회의 개념을 찾아내는 것은 첫째, 출애굽이 구약에서 보는 구원개념이라는 점이다.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다. 열 가지의 재앙, 추격하던 애굽군의 진멸 및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하워드 스나이더도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⁹³⁾

90) G. Kittel, G. Friedrich, eds., *신약성서 신약사전: 키틀 단권 신약원어 신약사전*,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1), 566.

91) Ibid.

92) Wilson Chow, "The Church in the Old Testament." *The Church: God's Agent for Change*, ed. (Deven: Paternoster, 1986), 22-26.

93) Howard A.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69.

둘째, 가나안 이전 시내산의 경험이다. 그들이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목적 하고 행진하나 시내산의 체험이 필요하였다. 출애굽 자체가 구원의 전체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다. 이렇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독특한 언약관계들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 삼중적인 특징이다. 그들은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삼중적인 특징⁹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또는 특권)은 책임(또는 선교)과 연결된 것이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특권과 함께 선교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 교회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으나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 오늘의 교회와 동일한 특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⁹⁵⁾라는 헬라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어원은 '부르다'의 뜻을 지닌 칼레오(καλέω)와 '~로부터 밖으로'라는 의미들 지닌 '에크'(εκ)의 합성어이다. 이 복합동사의 의미는 '~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이고 그 명사형은 '부름 받아 나온 자들'을 의미하게 된다. 이 개념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총회나 일단의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쓰였다.

에클레시아에 대하여 조지 퍼터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94) 첫째,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특별한 관계들 나타낸다. 둘째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의 해야 할 일은 세계적이며 전체적임을 의미한다.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하고 봉사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국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책임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셋째,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의 일을 담당할 백성으로 구별했다는 것이다.

95) Hans Ku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2), 61-62.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두 번(마 16:18; 18:17)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바실레이아(βασιλεία)라는 말은 공관복음에서 약 백번 나온다. "예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바실레이아)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의 말씀은 예수의 의도가 무엇이였는가들 말해준다.

신약에서의 용법은 '~을 향하여 부름 받은'(called unto)이라는 의미들 더 가진다.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들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들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70인 역과 신약성경에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을 가진다. 첫째, 그것은 ~로부터, 그리고 ~들 향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다. 둘째, 그것은 특별한 류의 사람들이다. 셋째,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넷째, 그것은 평등과 형제애라는 원리에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다섯째, 그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들 가진 사람들이다.⁹⁶⁾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부름을 입은 무리들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았으며, 그 사명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⁹⁷⁾ 보취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부름, 그리고 개종으로 인하여 모여진 신앙인들의 공동체라고 설명한다.⁹⁸⁾ 이 공동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며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모든 인류와 함께 하나로서 이 세계를 섬기도록 받은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론을 말하려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언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대표하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은 바울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들 상세히 다루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많은 지체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례를 받아 그와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을 받은 지체들이라고 설명한다(고전 12:12-13).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머리가 몸에 속하듯이 몸이 머리에 속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그의 껍로 사신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인식하고 몸 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96)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200.

97)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17.

98) Bosch, *선교신학*, 266.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보다 교회 자체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 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교회 활동, 종교적인 행사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활동들에 관심을 갖는다. 모든 인간의 활동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인간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으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교회적인 사람들은 정의, 자비, 진리보다 교회 생사에 우선순위를 둔다. 교회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까를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교회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들 변화시킬 것에 대해 염려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한다. 교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다. 교회 자체적인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교회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유로워져야 한다.⁹⁹⁾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말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나 '전'이라는 개념은 본래 구약성경에서 유래하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신약 교회가 탄생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 계심으로 개개인의 몸이 '성령의 전'(고전 6:19)인 동시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또한 신자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한다(엡 2:21-22). 즉 성령의 전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결합하여 성령의 전을 지어나가야 한다. 교회들 세우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개개인 몸인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의 몸중에서도 모두가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엡 2:20-22).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세워지고 성장하여 왔다.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의 능력 있는 복음 증거와 기사와 표적은 모두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기도 하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은사 공동체로서 교회의 의미는 바로 '다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로

99)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325.

서의 교회 교인들 각각의 다양한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다. 이러한 은사적 다양성은 교회가 '계급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지체적인 유기체'임을 대변하여 준다. 성령은 성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 주시며 각자의 차이들 인정하심으로 성도 개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신다(고전 12:4-7).

사도 바울의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전'으로서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교회의 성장은 유기적이거나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역사 안에서 교회의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들어 올 때, 선교들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만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

제 2 절 지역 교회의 이해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역 교회와 우주적 교회이다. 찰스 벤 엔젠은 “교회는 믿는 무리들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역 교회가 있다. 또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주적 교회가 있다”¹⁰⁰⁾고 말함으로 교회들 구분한다. 지역 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 존재임을 전제로 하며 지역 교회들 이해하고자 한다. 지역 교회들 우주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찰스 벤 엔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형성된 공동체이며, 살아 있는 성례전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밖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표지판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현실 상황에 맞는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자기반성을 하며 본연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 교회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가시적인 조직체로, 아직도 꺾된 모습을 갖고 있는 현실적 교회와 거룩하며 신적인,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이상적 교회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⁰¹⁾

1.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의 이해 및 당시에 행한 선교

교회사를 여섯 시대로 구분하면 성서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자 시대,

100)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희 역 (서울: 두란노, 1994), 15.

101) Ibid., 50.

경건주의에서 19세기 시대, 20세기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¹⁰²⁾ 앞 장에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은 다섯 시대를 논하기로 한다.

가. 고대시대의 교회

고대 교회에는 세 가지 권위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경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규범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군주적인 감독규정이었다. 이는 감독직으로 구성된 교회들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서방교회에서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관'으로 이해되고 '거룩한 기관'으로 이해되었다면 동방에서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적 실체'로 이해되고 '거룩한 제급'으로 이해되었다.

어거스틴은 교회들 세상과 대립해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다. 그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였는데 '보이는 교회'는 제급질서를 갖춘 교회로 이해했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자들이라고 보았다. 이 두 교회 개념은 상호 대립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다. 또 고대 교회는 교회에 관하여 특히 '사도신경'과 '니케아신조'에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교회들 '성도들의 교통함'과 '거룩한 것들'-성례에 참여함-으로 표현했고, '니케아신조'에서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네 가지-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 제시하였다.

고대 교회가 생존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인식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강화시키고 교회 자신의 상태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고대 기독교 내에 선교적 열정이 식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교회는 이단과 이교도의 무리와 싸워 승리한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교회는 바울의 선교관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당시 교회와 교회의 교부들은 불신자들을 순수한 의미에서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교회의 어두운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불신자들은 미개한 자들이었고 교회의 부담이 된다. 이에 반해 교회는 미개한 자들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단에 대하여는 교

102) 이 부분은 Horst G. Pöhlmann, *교의학*,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379-387의 내용을 기본으로 요약하였음.

회는 옳은 교리들 지킨 파수꾼이 된다. 그러기에 이 당시 교회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문명의 부재는 동의어였다. 또한 선교는 문화의 전파와 동의어가 된다.¹⁰³⁾ 결국 교회의 역동적이고 보편적인 선교관이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 자체의 무게 아래 눌러 선교는 곧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선교는 문명을 전달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나. 중세시대의 교회

중세기에 교황권은 점점 강해져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국가만이 아니라 감독들까지 단지 교황의 연장된 팔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한 교황중심주의는 중세 후기에 이르러 때때로 민족국가의 방향을 취한 공의회중심주의에 의해 의문시되었다.

교황중심주의는 제1바티칸 공의회(1870)에 관철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황은 '전 교회에 대해 최고의 법률적 권력'을 가지며 교황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앙 문제와 윤리 문제에 관해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무오류성'을 갖는다.

서방의 교황중심주의에 대립하는 것은 동방교회의 '황제중심주의'인데 이에 의하면 국가가 교회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교회가 국가의 구성요소인 것이다. 중세 기독교를 떠받치는 한 축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다. 수도원 운동은 이런 위기에 불구하고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한 동인이 되었다. 암흑기의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었던 두 기둥은 교황제도와 함께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후 기독교 선교가 활기를 띠면서 기독교 선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 표출되는데, 6세기 초반 베네딕트(Benedict)에 의해 세워진 수도원과 성 패트릭(St. Patrick)의 수도원 운동,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사 출신으로 로마교회의 수장이 된 교황 그레고리 1세(Gregory the Great)의 영국 선교의 결과로 유럽은 기독교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중세는 수도원의 선교가 매우 특색이 있는 시대이다. 이 중세 수도원의 선교가 교회가 하지 못한 선교사역을 인내로 감당하였다. 수도사들이 전문 선교사로 등장하

103) Bosch. *선교신학*. 119-120.

였다.¹⁰⁴⁾ 그리고 강압적인 선교를 말할 수 있다. 힘과 무력에 의한 기구적 확장이고, 정치력과 군사력에 의한 선교이다.

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론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했다. 첫째로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영적인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 두 나라를 서로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교회의 표지로서 순수한 복음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집행을 주장하였다. 이 말은 전통, 교직 계급적 구조와 사도적 계승 등이 교회의 참된 표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회는 본래 영적인 친교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볼 수 없고 오직 신앙하는 자들에게만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이는 교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창조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공의회는 오류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교황과 공의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잣대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섯째로 그들은 교직계급은 인간적인 법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의 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룩한 계급'은 '거룩한 봉사'로 변화되어야 하며 영적인 직무는 지배가 아니라 봉사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거룩한 봉사'에서 모두가 섬기며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다스리신다고 주장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그리스도들 머리로 그분의 통치원리에 따라 기초되는 것이지 교황식으로나 감독식으로 기초되는 것이 아리라고 주장했다.

칼빈이나 루터 등 종교 개혁자들은 선교가 교회의 핵심사역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칼빈이나 루터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거짓 교회에서 참 교회를 구별해 내는 일이었고 교회의 순결이었다. 그래서 말씀 선포, 성례전의 집행, 권징의 집행에서 그 순결성을 유지하는 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대단히 귀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교회의 참 표지론은 교회들 장소적인 개념에 강하게 묶어놓고 말았다. 칼빈은 목사에 대해 다음

104)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188.

과 같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도직을 제정하셨다. 그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대제사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점에서 사도와 목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목사는 어느 한 지역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고 그가 맡은 목양하게 하셨다.¹⁰⁵⁾

루터도 역시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들은 낯선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목적을 위해 지명을 받아 부름을 입었으며 또 보냄을 입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무도 다시 그와 같은 사도적인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 감독이나 목사는 다 자신이 맡은 특정교구들 가지고 있다.¹⁰⁶⁾

이들의 문제점은 거짓 교회로부터 참 교회들 구별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선교적 사명을 전 교회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등한시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생존의 문제로 인해 활발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과는 반대로 재세례파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 개념을 극단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교구나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펼쳤다.

재세례파의 선교관 가운데 특이한 점들은 이들이 국가 간의 절대적인 분리와 정부의 활동들에 대한 비 참여를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히 교회와 국가가 어떤 경우에서도 선교에서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세례파들은 대위임령의 명령을 계속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기에 재세례파는 현대 개신교 선교 운동의 선

105)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61), 414-415.

106) Harry Boer, *Pentecost and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75), 18.

구자들이라고 평가된다.¹⁰⁷⁾

라. 경건주의에서 19세기까지의 교회

경건주의에서는 교회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참된 교회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로서 이따금 회중적이고 소종파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것이 계몽주의에서 더 강화되었는데, 계몽주의는 교회 신앙을 이성적 신앙에 이르기 위해 뛰어 넘어야 할 전단계로 보고 또 타율적 교회의 자리들 자율적 개인양심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대 선교는 모라비안과 경건주의자들에 의한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선교들 시작으로 19세기까지의 선교 활동이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라비안과 경건주의는 개신교 정통주의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종교적 상대주의와 이성을 절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신대륙 아메리카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대각성 운동이 전개되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1726년부터 시작하여 1760년 까지 지속되었고, 2차 대각성 운동은 1787년에서 시작하여 1825년 까지 지속되었다. 이 운동들은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이루어졌다. 특히 2차 대각성 운동은 그 당시 국내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귀한 기반들을 제공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선교의 열정은 급격히 확장되었다. 이는 계몽주의의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영국과 미국, 일부 유럽 교회의 반응이었다. 그 첫 출발은 믿음 선교부의 모형을 제시한 칼 구즈라프(Karl Gutzlaff)와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식민주의적 선교 시대, 선교 단체 중심 선교, 학생 자원 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등의 특징을 보였다. 19세는 다양한 세계사적 사건의 폭풍 속에서 선교적 진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¹⁰⁸⁾

19세기 선교는 19세기 전반에 걸친 선교부(Missionary Society)들의 탄생으로 그 전형적인 선교의 형태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 선교부들에 의한 선교는 영혼 구원

107)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381.

108)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신학*, 194.

이라는 폭 넓은 목표가 아니라 교회 개척이라는 보다 좁혀진 의미의 선교 목표들 갖게 된다.

이에 반하여 이 시기에 나타나는 독일과 스위스들 중심으로 한 선교관은 선교들 문화적인 전달로 이해하였다. 선교들 문화적 전달로 이해한 배경에는 그 당시 태동하였던 역사적 비평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있다. 바로 선교들 역사적 비평주의와 합리주의의 결과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가 선교들 문화적 전달로 보는 선교관을 낳게 한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선교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종교라는데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그 기독교의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있다는 것이다.

이 당시의 선교는 교회 개척을 중시하고, 토착교회들 세워 이들 조직화하는 경향과 선교들 문화의 전달로 인식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의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선교들 문화의 전달로 인식하는 선교관의 경우는 서구 식민주의의 영향과 함께 서구의 문화적 우월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우월감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긍정과 함께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19세기 후반의 기독교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사회 변혁을 위한 활동은 전도와 교육과 의료 사업의 형태로 나타났다.¹⁰⁹⁾

마. 20세기 교회의 이해

1,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시적으로 교회가 재발견된 것이 아무리 희망을 주는 징조라고 해도 20세기 교회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세기는 오히려 대중이 교회들 이탈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상황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관 혹은 삶의 방식과 새로운 가치와의 충돌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세계화, 개방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유교적 사교의 틀을 가진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간의 의식의 차이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여유는 사람들로

109)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307.

하여금 자기 율타리 밖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종교(기독교)의 필요성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낮아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대응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현실 문화 안에서의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지역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이 단어는 ek(~로부터 밖으로)와 kaleo(부르다)의 합성어로 부름 받아 나온 사람을 의미한다. 선교학자 조지 피터스는 에클레시아를 첫째, ~로부터, ~들 향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 둘째,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 셋째,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 넷째, 평등한 형제애라는 원리에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다섯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들 가진 사람들로 구분하여 설명한다.¹¹⁰⁾ 그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았으며 그 사명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아더 글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교회 구조들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보들 단순히 제도적 성장으로 표시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엡1:22-23). 하지만 지역교회들과 교단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참과 거짓의 혼합물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언제나 영적 갱신과 선교적 우선 순위에 대해 철저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이지 교회 조직을 신격화시키는 시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시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¹¹¹⁾

독일의 선교학자 칼 하르첸슈타인(Karl Hartenstein)은 “교회의 본질은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의 참여와 세계 구원을 위한 그의 선교 참여이고, 교회

110)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116.

111)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368.

는 선교를 통해 존재하며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며 유일한 존재 이유”¹¹²⁾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교회가 영혼 구원에 주력하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해도 교회가 선교 사역 없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한낱 인간의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교는 주께서 교회들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요, 그들에게 부과된 최대의 과업이다.¹¹³⁾ 이것이 교회들 교회되게 하는 것으로서 교회 존재의 목적이며 사명이다. 또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 포괄적이며 결정적인 교회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과 세계를 위한 봉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더라면 기독교는 현재까지 생존해 오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는 크리스천 공동체와 매우 유사한 집단이 존재했었다. 이들은 옛세네파(콰란 공동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와 비슷한 점들이 있었으나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멸절하였다. 이들은 크리스천 공동체와 같이 유대교를 모태로 발생했으며 율법을 중요시했고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종말론적이며 공동체를 형성한 점에서도 교회와 흡사하였다. 이와 같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 집단은 사라지고 크리스천 공동체는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콰란 공동체가 비선교적 공동체였던 것에 비하여 크리스천 공동체는 선교적인 공동체였던 까닭이다.¹¹⁴⁾

따라서 선교는 교회에 명하신 주님의 명령이므로 교회가 하면 더 좋고,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다. 즉 선교는 교회에 부과된 짐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이유이며 원인인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 특징적 활동이 선교인 것이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역사 속에서 현실적인 선교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수행된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역사적인 활동을 의미한다.¹¹⁵⁾

112) 신동우, *선교학: 이론과 실제*, 90-91.

113) 박삼수,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서울: 기문출판사, 1987), 26.

114) 서정운, *교회와 선교*, 25.

3. 지역 교회의 선교적 사명

현대 한국교회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무엇인가? 그 원론적 해결방안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는 것이다. 기독교 초기의 교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를 지상과제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쓴 교회들이다.

헤리 보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회가 선교를 본질로 하는 선교적 공동체임을 밝히고 있다.

지상명령의 능력과 의미는 전적으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은 서로 관계가 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신약의 교회가 해야 할 많은 활동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이다. 이런 이유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이 교회의 중심 사역이다.¹¹⁵⁾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교회가 선교적 비전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들 일으키셔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콘스탄티노플, 로마,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그리고 북미는 한 때들 풍미한 선교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적 비전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주변국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오늘날 하나님은 세계 속에서, 선교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 여기는 젊고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만일 교회가 선교적 비전을 분명히 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교역자나 평신도들 막론하고 전 교회가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¹¹⁷⁾

요하네스 블라우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그리스도

115) 서정운, *교회와 선교*, 25.

116) H. R. Boer, *단편초대교회사*, 백성호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89.

117) 옥한흠, *평신도들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7), 57.

가 주되신 교회의 선교가 아니면 선교가 아니다"118)라고 말하며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선교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과거 몇 십년간 선교 사상에서 선교활동의 종말론적 기능을 '외국 선교'로서 강조한 것은 이면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를 세계로 더불어 새로이 만나고 세계의 모든 곳을 향하도록 부름 받아 있는 세계 안에 있는 교회 (Church-in the-world)와 세계를 위한 교회 (Church for the world)로 재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교라는 것을 '외국 선교'로 보는 특수한 신학적 의미와 그 중요성은 세상에 보냄받은 단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알려, 교회의 소명을 일깨워 주며 또 감당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선교활동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 하나가 아닌 교회의 모든 활동의 표준이라 할 수 있다....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갈 때 교회이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119)

박형룡은 증거가 교회의 고귀한 임무라고 말하되 "교회의 최고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증거하는 일이다. 교회가 정당히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든지 다 이 임무에 종속하며 보조적"120)이라고 확실히 지적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필요성을 교회의 존재 이유와 주님 재림의 준비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사명 수행하기를 중지하면 교회는 교회됨을 중지한다."121)

하용조는 "교회가 선교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교회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회는 선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목표이어야 한다"122)고 하였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었고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임이다.123)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인 사명을 드러내셨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편이다. 그에 의해서 구원되고 그를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118) Blauw, *교회의 선교적 본질*, 136.

119) Ibid., 137.

120) 박형룡, *교회론* (서울: 은성문화사, 1974), 192.

121) Ibid., 193.

122) 하용조, *성경과 목회*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4), 71.

123) Ibid., 24.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요 입이요 그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지역 교회의 사명은 너무 자명하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공동체'였다.

결국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고, 교회의 선교를 간과하고서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다. 뉴비긴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주장하듯이, 교회의 참모습을 갖지 못한 선교도 신적 사도성(divine apostolate)을 바르게 표현함이 아니다. "교회 없는 선교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처럼 괴물 같은 기형아일 뿐이다."¹²⁴⁾ 지역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는 지역 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생활해 나갈 때 지역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¹²⁵⁾

제 3 절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 모델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의 선교 모습은 오늘의 교회에게 큰 도전이 된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 모델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교회 선교 활성화들 위해 매우 유의하다. 성경에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안디옥 교회, 구계에 앞장섰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세계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은 복음의 시발지인 예루살렘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함을 함축한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구성하고 있는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 교회의 탄

124) J. E. Lesslie Newbigin, *The Household of God: Lectures of the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Friendship, 1954), 169-170.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34에서 개인용.

125) Ibid., 39.

생을 가능케 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2-4).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뿌리들 내리고 있는 것이며, 제자들로부터 기인한 것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요 그들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결과는 복음 증거로 나타났고 그들의 복음 증거의 결과는 바로 3천명이나 되는 회심자들 낳게 된 것이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였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4-47).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였다(행 2:40-41; 4:29-31).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는 뜨거운 전도열을 특정 지을 수 있다. 박해로 인해 두려워지고 소심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전도들 통하여 3,000명(행 2:41), 5,000명(행 4:4)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며, 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행 4:2-31). 이들은 온갖 종류의 혼돈이 야기되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에 굴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¹²⁶⁾

둘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행 2:42).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중심의

126) Bavinck, *선교학개론*, 59.

교회였다. 사도들은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¹²⁷⁾

셋째, 서로 교제하며 먹을 때는 교회였다(행 2:42).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말에는 일상적인 삶을 깊이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정신적 물질적 교제를 뜻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표현하는 낱말이다.¹²⁸⁾ 기독교 신앙은 종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횡적으로는 성도간의 교제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²⁹⁾ 결국 한 식구처럼 같이 살면서 모든 물건도 공동으로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도와 모이기에 힘쓴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행 2:1-4; 2:42, 46; 4:31).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대로 전혀 기도에 힘썼으며, 그 결과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다. 실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었으며¹³⁰⁾ 기도들 통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이다(행 4:29-31). 이들은 날마다 집에서 예배와 기도 모임을 가졌으며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있었다.¹³¹⁾

다섯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다(행 2:43; 5:12; 6:8).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이들 통하여 이미 믿은 자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으며, 믿지 않던 자들은 이들 보고 두려워하였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방편이 되었다(행 3:1-4:4).

여섯째,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행 2:44-45; 4:32). 성령 강림이후 영적 변화는 믿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공동체적 유무상통의 삶으로 승화되는 결과들 낳았다. 모든 물건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소유처럼 되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그것이 필요할 때에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¹³²⁾ 즉 유무상통은 결코 영구적인 특징이나 원칙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물질을 나누어주는 교제는

127) E. F. Harrison,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신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23.

128) 이상근, *신약성서주해 사도행전* (대구: 성광사, 1991), 60.

129) Ibid., 36.

130) W. S. McMimie, *The Search for Early Church* (Wheaton: Tyndale, 1978), 34.

131) Ibid., 36.

132) A. T. Robertson, *신약원어 대해설 3: 사도행전* (서울: 요단출판사, 1984), 66.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 실행되어온 것만은 사실이다.¹³³⁾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봉사가 전도 못지않은 선교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타 있다. 즉 전도 일변도만이 선교가 아니라 전도와 봉사, 교육 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선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선교적 삶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선교적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결과들 가져왔으며 다수의 결신자들 얻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들 가져오게 되었다.¹³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함께 찾아온 것은 외부로부터 박해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 앞에 끌려왔지만 놓임 받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주의 천사들 통해 풀려나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 스테반의 최초의 순교 역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박해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음을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들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였다.

위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는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 전도자들이라는 점이다. 평신도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성령이 강권한 일이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행 8:26-39)에서 볼 수 있다. 빌립은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닌 전적으로 성령의 명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 말씀을 깨우쳐주고 세례를 주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었다. 그것은 이방인을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사도에 의하여 직접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앞으로 이방인 선교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평신도와 사역자의 구

133) Robertson, *신약원어 대해설 3: 사도행전*, 35.

134) 김용국, "선교의 성서적 근거," *기독교 사상*, 1982년 6월호, 142.

분 없이 모두 이 일에 참여하였으므로 교회활동 자체가 선교 사역이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¹³⁵⁾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로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도행전의 중반과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들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졌는가에 대한 이유들 몇 가지 생각해 보자

첫째, 선교의 지상명령에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평신도 전도자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파했으나 적극적이지 못했다. 특히 바울의 선교에서 보여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보다는 견제들 하고 전통적인 기득권만을 주장하려고 하였다.¹³⁶⁾

둘째, 강한 말세 사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로 이들은 선교에 대한 열심보다는 예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¹³⁷⁾ 그래서 타인에 대한 전도보다는 개인의 신앙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셋째, 교회 내의 팔레스틴 출신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주의적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헬라주의적 유대 기독교인인 스테반은 순교자들 하지만 12사도들은 순교까지 이르지 않은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아직 이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있음이 분명했다.

2.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 중심으로 전파된 복음은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의 세계적 확장을 꾀하게 된다. 우리는 세계선교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안디옥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출발지이다.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의 출발지이며 이것은 결국 세계 선교의 출발지가 되게 한 것이다.

안디옥 교회는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135)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94.

136) 김연태, *빌립보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61.

137) 서정운, *교회와 선교*, 31.

구레네의 배경을 가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시작한 교회이다(행 11:19-21). 이 박해는 기독교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복음이 이방인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파한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최초의 교회가 되었으며,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를 이루고 있다.¹³⁸⁾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소아시아의 입구에 위치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제국의 전역과 연계되어 있었던 만큼 이방 세계로 뻗어 가고자 할 때 선교 전략기지가 되었다.¹³⁹⁾

안디옥 교회는 뛰어난 선교적인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세계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봉사가 있었다. 스테반의 순교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복음을 전했다. 이들의 복음전도의 열심은 결국 안디옥 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설립자들의 이런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원하여 희생적인 신앙으로 전도를 했고, 교회들 개척했고, 교회들 섬겼다.¹⁴⁰⁾ 안디옥 교회는 난민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개척 교회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르고 감수 하였다. 그들은 소수였고, 가난하고 무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었다.¹⁴¹⁾

둘째,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다. 기독교 선교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 통제 받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도

138) B. M. Metzger, *The New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Nashville: Abingdon, 1965), 206.

139) J. H. Kane, *기독교 세계 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8.

140)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54-55.

141) M. Green, *현대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12.

력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일이다¹⁴²⁾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 성 밖으로 진출하려는 의도적인 자세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에는 미비점이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¹⁴³⁾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게을리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안디옥 교회들 쓰셨으며 또한 그의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였다.¹⁴⁴⁾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시작과 그 사명 감당에 있어서 성령의 주도적 역할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위해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였다. 그때에 “주들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때로 세우라 하시니”(행 13:2)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나타낸 말씀이다. 또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였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이다.¹⁴⁵⁾ 선교 신학자 피터스는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은 세계 선교의 착수자요, 동기 부여자요, 감독자라고 했다.¹⁴⁶⁾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최초로 선교를 실천에 옮긴 교회였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우리는 바나바가 어떻게 최초의 선교 헌금을 마련했으며, 바울이 어떻게 그의 선교 기금을 확보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너그러운 연보들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¹⁴⁷⁾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 1차 전도 여행 및 그 이후의 전도여행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¹⁴⁸⁾

셋째, 구제활동에 헌신적인 교회였다. 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서적인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교회 한 부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신들의 고통으로 여긴 것은 당연

142)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78.

143) 서정운, *교회와 선교*, 29.

144) Bavinck, *선교학개론*, 57.

145) Ibid., 59.

146)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305.

147) McBirnie, *The Search for the Early Church*, 55-56.

148) McBirnie, *The Search for the Early Church*, 56.

한 것이었으며 이것을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¹⁴⁹⁾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자 이들을 돕기 위해 각자 힘닿는 대로 부조들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천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 중에는 과부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이 있었지만(행 6:1-4),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부조금을 보냄으로 자기들의 영역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최초의 교회였다. 이 교회는 구제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하나의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복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실천했다.¹⁵⁰⁾

넷째,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받는 교회였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행 11:26).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때 쓰던 부정적인 의미들 내포한 단어였다.¹⁵¹⁾ 이런 호칭 사용에서 안디옥 교인들은 안디옥의 타락한 문화들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과 믿음을 온전히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다섯째,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여 파송한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는데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기 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이다. 선교사는 사역지에서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교사의 자질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선교사가 사역지에 가면 제각기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그리스도들 가르치고 인도하여 그들 스스로의 지도자들 세울 때까지 머물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선교사가 요구되기에 최고 수준의 선교사들 보내야 한다.¹⁵²⁾ 이 자질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마지막으로, 헬라어들 통용할 줄 아는 최초의 교회였다.¹⁵³⁾ 그 당시 세계의 통용

149) W. Barclay, *사도행전*, 정혁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130.

150) McBirnie, *The Search for the Early Church*, 53.

151) Harrison,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336.

152) M. Griffiths, *선교사역에의 헌신*, 권행자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6), 45.

153) A. Schlatter, *사도행전 강해*, 김희보 역 (서울: 종로서적, 1994), 144.

어는 헬라이어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람어를 동용한 교회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계성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 세계에 동용이 되는 헬라이어들 사용하는 교회였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전달의 중요성과 문화의 중요성을 암시해 준 사건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신약의 모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⁵⁴⁾

3. 빌립보 교회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 도시는 기원전 360년경에 아텐의 망명자 칼리스트라투스(Callistratus)에 의해 창건되었고 기원전 365년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왕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¹⁵⁵⁾

빌립보 인구의 대부분은 헬라인이었고, 로마 군인과 그 가족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 빌립보는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지이고 엑나티아 가도 선상에 놓여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으로는 헬라와 로마 종교, 이집트, 시리아 종교 등이 서로 섞여 있어서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것은 48-49년으로, 제 2차 선교여행 기간 중이었으며 클라우디우스 황제(41-54년)의 통치 기간이었다. 사도행전 16장 11절-40절에 의하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로 네압볼리 항구에 도착하여 엑나티아 가도를 통하여 빌립보에 도착한다.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전도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다렸다. 그것은 바울의 안식일에 관한 자각과 헌신적인 행동력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안식일을 기다림으로써 바울은 유대인에게 맨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빌립보의 유대인 공동체는 아주 작았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의 기도처에서 여인들만 만날 수 있었다.

거기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을 만난다. 그녀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은 그녀에게 전도하였고 말씀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행 16:14-15). 그리하여 그녀는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154)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81.

155) Schlatter, *사도행전 강해*, 144.

러나 바울의 빌립보 선교는 순탄하지 않았다. 점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 화근이 되어 고발이 되었으며 결국 바울과 실라는 투옥당한다. 이들은 옥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찬미들 부르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수감과 작교가 풀어졌다. 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의 자살 행위를 막고, 간수는 바울의 전도들 받아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오래 전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들 향해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점에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첫째, 복음 전파를 위한 열심에 변함이 없는 교회였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빌립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내부 문제로 에너지들 낭비하지 않았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 전파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도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빌 1:14).¹⁵⁶⁾

둘째, 복음 전파를 위해 재정적으로 최대한의 후원을 한 교회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개척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왔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개척 이후에 세워졌다.

셋째, 구제에 앞장 선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선물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들 위한 헌금에도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이 나타내 주고 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들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4.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는 로마 속령인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으며 이곳은 당시에 회당이 있었고(행 17:1) 많은 유대인인 “경건한 자들”이 있었던 번화한 도시였다.¹⁵⁷⁾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들 지나 그들의 목적지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156) Schlatter. *사도행전 강해*, 88.

157) W. G. Kummel. *신약정경 개론*, 박인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259.

서 관습을 따라 세 안식일을 사역하며 바울이 강론의 기지로서 이곳 회당을 사용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풀어 증명할 때 토론과 논쟁이 일어났다. 바울이 한 걸음 나아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불일치는 가장 강렬해졌다(행 17:30).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설득되었다(행 17:4). 불과 3주간의 전도사역으로 열매를 맺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되었는데 이 교회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믿음의 신실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바울의 전도사역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오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몰이킨 것이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 회심자들로는 데마(딤후 4:10), 아리스다고(행 19:29), 세군도(행 20:4), 가이오(행 19:29) 등이 있다. 그러나 불신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도 같이 일어나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바울은 이 도시에서 쫓겨나 남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떠났다.¹⁵⁸⁾

그러나 바울은 그 도시에 있는 그의 친구들을 보기를 갈망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서신을 그들에게 쓰게 되었다.¹⁵⁹⁾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설립한 교회이다. 그러한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통해 개척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룩한 교회인 것이다.¹⁶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의 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선교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담긴 믿음, 소망, 사랑을 삶속에서 가장 잘 실천한 교회였다(살전 1:2). 또한 하나님의 도를 받아 주를 본받는 모범적인 교회였다(살전 1:7상).¹⁶¹⁾

158) Kummel, *신약정경 개론*, 260.

159) E. F. Harrison, *The Apostolic Church* (Grand Rapids: Willai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176.

160) 이광순, "복음과 교회," *목회자료* (1995), 118.

161) 이광순, "복음과 교회," 119-122.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들,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소망은 미래와의 관계들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사랑은 사람을 향해, 소망은 미래들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으며(살전 1:1, 4:10),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였다(살전 5:11). 그리고 데살로니가교회는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도시를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증거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먼저 주님과 그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전하는 열심을 가진 교회였다(살전 1:8)¹⁶²⁾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했던 것이다.¹⁶³⁾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네 교회들 통해 나타난 모습은 선교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선교지향적인 교회의 모습들은 대체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통전적인 선교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선교지향적인 교회의 모델을 토대로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의 목회적 적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5장에서는 마천중앙교회의 선교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다. 이상적인 모델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교회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162) Harrison, *The Apostolic Church*, 199.

163) 이광순, "복음과 교회," 122-123. 데살로니가교회는 우상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폭되고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살전 1:9-10).

제 5 장

마천중앙교회의 선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천중앙교회는 본인이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18일까지 약 17년간 사역한 교회이다. 고등부와 청년부들 지도하는 교육전도사로 3년을 사역했고 전임전도사로 2년 반을 사역했으며 부목사로서 12년 정도를 사역했다. 17년 동안 재직하면서 교육부서 및 장년성경공부의 체계를 세웠고, 교회 행사 및 비전의 기획을 했으며, 교구목사로 성도들과 호흡을 함께 했다. 선교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박보범 담임목사와 함께 여러 번 선교지들 방문하였고 교회에서 행하는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현재는 2007년 11월 1일 부로 구미시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을 하여 2007년 12월 9일에 위임받아 목회들 하고 있다. 본 논문의 특성상 이전에 장기간 있었던 마천중앙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선교 활성화들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마천중앙교회의 역사들 간략하게 살펴보고, 각 부서 및 교회에 있는 선교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다.

제 1 절 마천중앙교회 역사

마천중앙교회는 1967년 11월 26일 서울 영락교회 장년주일학교와 여전도회에서 거여, 마천지역에 개척을 결의하고 안문혁 목사들 통해 마천동 87의 4호 대지 200평을 매입하여 천막을 치고 정상일 가족 외 11명이 모여 첫 예배들 드림으로 시작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이다.

교회의 건물에 대한 사항은 1968년 5월 22일에 예배당을 건축 준공하여 헌당하였다. 1979년 2월 4일 마천동 184의 46 동현교회 예배당을 매입하였다. 그 후 주변의 집들을 차례로 매입하여 통합하였고 2005년 2월 22일에 현재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2006년 6월 4일에 입당하였다.

마천중앙교회의 초대 담임목사는 안문혁 목사(1967. 11. 26-1971. 8)이다. 제 2 대 담임목사는 윤희식 목사(1971. 8-1975. 12. 16)이다. 3대 담임목사는 김광명 목사(1975. 12. 21-1980. 10. 30)이다. 그리고 제 4 대 담임목사는 1980년 11월 10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목회하는 박보범 목사이다. 마천중앙교회는 박보범 목사의 영적인 지도 아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의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2008년 1월 현재 마천중앙교회는 담임목사 1명과 부목사 6명과 유학목사 2명과 교육전도사 7명과 여러 명의 평신도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으며, 장로 19명과 안수집사 95명과 권사 125명과 서리집사 789명과 성도 1,000명의 장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청년회가 200명이 모이고, 고등부와 중등부와 소년부(초등학교 5-6학년)와 초등부(초등학교 3-4학년)와 유년부(초등학교 1-2학년)와 유치부와 유아부의 500여 명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있다. 그래서 마천중앙교회는 4,000명의 제적성도에 2,5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중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마천중앙교회는 교회성장에 걸맞게 1990년 9월 16일에 세계선교후원회를 발족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동안 선교사로 최바울, 이은혜, 조성광을 임명하여 파송하였고, 현지선교사로 Philemon Gil, Ngeng Chhuan, Rin Joseob, Ban Binsent, Um Ba를 세워서 활동하게 하였다. 2000년 12월 17일부터 신승철 목사들 선교목사로 세워서 적극적인 국내외 선교를 감당하게 하였고, 2002년 12월 15일부터 이용남 목사들 협동목사로 세워 국내외 선교 동원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다. 특히 2004년 5월 20일에는 해외선교 기구들 확대 개편하면서 세계선교공동체(WMC: World Mission Community) 창립총회를 열고 박보범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마천중앙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서 고등부와 청년회의 젊은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선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회 안과 밖으로도 다양한 선교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를 통하여 선교적 마인드를 높이고 있다.

제 2 절 마천중앙교회 선교 사역 소개

마천중앙교회는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실시한 단기선교사역과 교회에서 실시하는 선교학교와 마천중앙교회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교프로그램과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실시하는 선교바자회와 교회의 선교기도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교회학교-고등부들 중심으로

마천중앙교회 고등부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이혜숙 목사가 지도하였다. 그래서 평소에도 선교적인 도전을 많이 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5년 1월 23일(주일)부터 30일(토)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필리핀에서 행한 단기선교훈련을 소개하기로 한다. 주제는 'Come, See! The Great Vision of God!'이었다.

마천중앙교회 고등부가 세운 단기선교훈련의 목적은 첫째, 세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를 체험하고 동역을 이룬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자는 반드시 'Vision Trip 예비학교'의 8주간의 과정을 마치도록 했다. 이 'Vision Trip 예비학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성취되기를 기대했다. 첫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안다. 둘째, 선교지에 가기 전에 간접체험을 통해서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 마인드를 갖는다. 셋째, 기도와 경건의 훈련,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강건한 신앙인이 된다. 넷째, 현지의 언어, 영어찬양, 워십댄스를 준비하여 현지에서의 활동을 준비한다. 다섯째, 필리핀 선교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을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필리핀에 대한 이해와 친숙감을 갖는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 내용을 가진다.

첫째, 경건의 훈련, 현지의 언어, 선교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에 대한 강의를 한다. 둘째, 팀워크를 위한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다. 셋째, 전도반, 찬양반, 연극반으로 조를 나누어 선교지에서 행할 프로그램 준비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생활의 훈련을 강화한다.

'Vision Trip 예비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표 1>과

같이 실시한다.

<표 1> Vision Trip 예비학교 일정

주	월	일	주제	제목	조별 활동	경건과 세	성경암송
1	11	20	선교 도전	개회예배(OT)	조별편성 및 자기소개 공동체 훈련		마 24:14
2	11	27		하나님의 선교 (강사: 최성열 전도사)	공동체 훈련 찬양, 전도, 연극준비	1회	행 1:8
3	12	4		선교와 세계관 (강사: 백창욱 전도사)	" "	2회	마 28:19-20 막 16:15
4	12	11	선교 정보	미전도종족선교 (강사: 조명순 선교사)	"	3회	계 7:9-10
5	12	18		이슬람선교 (강 : 주누가 선교사)	"	4회	시 67:3
6	12	23		펠리펀의 문화, 정치, 사회, 종교(조별발표)	"	5회	시 2:8
7	1	8	선교 헌신	선교에 대한 헌신 (강사: 최성열 전도사)	공동체 훈련/ 전체 여행연습	6회	행 2:17; 11:18
8	1	15		Mission ACTS	전체 여행연습	7회	모두 암송

그리고 'Vision Trip 예비학교'의 강의 시간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Vision Trip 예비학교 강의 시간표

시간	내용	담당자
3:00 - 3:20	경배와 찬양	찬양 인도자
3:20 - 4:50	강의 및 기도회	강사
4:50 - 5:00	휴식	모두
5:00 - 5:30	공동체 및 언어 훈련	강사
5:30 - 6:30	조별 활동	조장

그리고 Vision Trip의 6박 7일간의 일정은 다음 <표 3> 과 같이 잡았다.

<표 3> Vision Trip 일정

요일	방문지	교통편	시간	일정
주일	인천공항 마닐라	PAL	3시간 30분간 탑승	저녁 5시 인천국제공항 집결, 탑승수속, 마닐라 센터 도착
월	파식코	지프니		파식코 방문
화	시부	배	23시간 항해	오전 10시 시부행 배 탑승, 조편성 및 시부 정탐강의 및 찬양집회
수	시부	지프니 도보		각 조별 시부(Cebu) 정탐 마젤란 크로스, 시부전망대 외
목	민다나오	배	12시간 항해	산티아고 선교 센터 도착, 원주민 현장 체험 1박 2일
금	민다나오 마닐라	비행기		마닐라 도착, 마닐라 투어, 마닐라 호텔에서 일박
토	마닐라공항 한국 도착	지프니 PAL		마닐라 공항 출발수료식 및 한국 귀국 저녁 6시 30분 한국도착

Vision Trip 단기선교훈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은데 교사로
는 이혜숙, 송인성, 송하영, 서미경, 김혜정, 학생으로는 차민한, 양현승, 송평화, 최하
나, 이정훈, 김규호, 김용재, 권은혜, 이정아, 김태현, 정영은, 방성용, 노진철, 이미영,
김영권, 김권호, 조성경, 서지현, 정예나, 최지혜, 고동근, 주신애, 이견주, 김민우, 성
지현, 최승호, 노가을, 이인영, 김근호, 배영출, 정은실, 김민지, 변은정, 여소영, 박경

후, 김민선, 하선영, 이학, 박지근이 있다.

고등부는 이 단기 선교들 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삶의 목적을 새롭게 가지는 큰 수확하였다. 단기 선교들 다녀온 후에도 기도회 및 계속되는 선교지와의 연락을 통하여 선교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2. 청년부 단기 선교 사역

헤셀그레이브(Hesselegrave)는 현대 선교의 동향 중 두드러진 특징으로 단기선교 사역의 수적인 증가에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선교한국 대회들 통해서 매2년 마다 1,000명 이상의 청년, 학생들이 그리고 교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곳저곳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단기선교훈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교회에서도 청년 대학부나 장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훈련 혹은 선교지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단기선교사역자의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교회에서도 21세기 선교에 있어서 단기선교 사역이 선교의 한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¹⁶⁴⁾

이러한 예측은 한국교회에 맞아 들였고 특별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마천중앙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마다 일본과 중국과 필리핀과 몽골 등으로 단기선교들 다녀왔다.

본 논문에는 2005년에 중국에 다녀온 사역과 2007년에 몽골에 다녀온 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2005년 중국 단기선교

2005년의 중국 단기선교의 주제는 'Again1907'이었다. 이 단기선교는 수필체의 보고서들 보는 것으로 살펴본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쫓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시편 2:8-9)는 말씀을 주장하며 63명의 OK GOD(마천중앙교회 청년부의 명칭)청년들이 단동선교들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새벽을 깨우고 저녁모임을 가졌다. 그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164)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229.

단동과 북한을 알아가며 5가지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했다. 준비하는 과정과 관계의 영역, 그리고 낯선 땅으로부터 닦쳐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안전과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밟는 단동의 땅이 여행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되기들.

2005년 하계수련회 선교지로 택한 곳은 북한이다. 통일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100여명에 이르는 청년들과 그것도 선교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 63명의 청년들은 떠나는 선교사로 함께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했다.

우리가 택한 곳은 신의주가 보이는 압록강근처의 '단동'이라는 곳이다. 비록 북한의 땅을 직접 밟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목적 잃은 선교, 혹은 단순한 여행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63명의 청년들은 단동으로 떠나는 배에 올라탔다. 단동으로 떠나는 16시간의 항해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5가지 영역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해주었다. 출발일 오전 늦게까지 내린 비는 우리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멈추기 시작했다. 항해시간에 맞춰 활짝 갠 하늘을 열어주시고 장시간의 이동으로 힘들고 지친 지체들 위해 그리고 알지 못했던 지체와 함께 이야기들 나누고 기도했던 시간들은 그야말로 G12의 목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하루들 꼬박 배 안에서 보내고 도착한 단동에서 우리들 맞이한 것은 텅 빈 터미널의 버스 두 대와 현지가이드 2명이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우리는 곧바로 2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만리장성으로 떠났다. 만리장성 중에서도 끝자락에 속하는 호산장성을 택했다. 그곳에서는 단동의 시내와 북한의 신의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고풍스럽지는 않지만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현지사람들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졌다. 눈앞에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고지의 산을 오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삶은 산과 같다. 많은 굴곡과 험난한 비탈길, 그리고 무성한 나무들 헤치며 정상을 향해 발을 던는 그 순간순간의 아픔과 희열들, 비로소 정상에 올라와서야만 느끼는 절정은 삶이다. 어쩌면 63명의 청년들이 호산장성에서 느껴야하는 절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산장성은 깔끔하게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호산장성을 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의 버려들 스쳤던 것은 효주다. 2002년 여름부터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걸기조차 힘에 겨운 효주가 동행했다. 우리는 그런 효주들 위해 주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있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들 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다소 지치고 힘에 겨워 보이긴 했으나 효주는 90도의 경사에 이르는 수 만 개의 계단을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만리장성을 오르고 있었다.

호산장성을 오르는 오른편으로는 단동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였다. 안개로 가려진 단동의 시야는 먹구름에 겹쳐 짧은 순간 보았던 중국의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그런 왼편으로는 북한이 보였다. 통일전망대나 임진각에서 보았던 그런 곳이 아니다. 이 길 따라 곧장 내려가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에 북한이 있다. 그 곳에는 철조망도 없다.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군인도 없다.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사람의 독재체계에 가려져 세상과는 차단된 삶을 살아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꿈꾸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는 내 시야에 비춰진 신의주의 넓은 초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이 바라길 기도했다.

호산장성을 내려온 청년들은 8개조로 나뉘어 본격적인 단동 땅 밟기들 시작했다. 단동 땅 밟기들 하면서 몸소 체험한 것이지만 낯선 땅에서의 힘겨운 즐거움이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말이 통하지 않아 멧쩍은 웃음을 비추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모국어들 뽐낼 수 있는 시간이다. 수줍은 보디랭귀지로 나의 만족을 채웠던 그 순간순간의 추억들을 ‘힘겨운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본다.

허기진 배들 달래기 위해 우리는 낮에 둘러보았던 압록강 근처로 발길을 돌렸다 (압록강 공원 근처는 북한식당들이 즐비한 곳이기도 하다). ‘송도원’이라는 곳에 도착한 우리는 북조선(이곳에서는 ‘북한’이 아닌 ‘북조선’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다)아가씨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곳의 아가씨들은 왼쪽가슴에 북한인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우리는 북조선 아가씨들의 안내를 받아가며 저녁식사를 즐겼다.

북한식당에서 북조선 아가씨들 만날 수 있다는 것 말고도 흥미로운 한 가지는 그녀들의 신명나는 악기연주와 가무실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꽃분홍 한복을 입은 아가씨의 등장과 요란하게 휘둘리는 기타, 그리고 맛깔스럽게 연주하는 드럼소리에 우리의 어깨도 흥겨웠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는 북조선 아가씨들은 북한에서 파견 나온 안기부직원이라고 한다. 3년간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곳에 손님을 가장하고 온 북조선 사람들과 교류하는 외국인들을 관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여 나라에 알리는 것이 주된 업무다. 단동에 체류해 있는 기간 동안 일체 가족을 만날 수 없으며, 임기기간이 끝나면 나라에서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평생을 보장받는 특권이 있다(이 이야기들 듣는 순간 그녀들의 갈망하던 웃음과 미소가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다음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북조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전도사님의 ‘자매’라는 호칭에 우리와 비슷한 나이들 형성하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두 자매는 우리네 어머니 또래 분이셨다. 두 자매는 우리가 묵었던 짐질방(63명의 인원을 수용하기에 제일 적절했던 곳이었다). 근처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우리는 그곳을 ‘센터’라 칭했다).

63명의 청년들이 번갈아 가면서 두 자매를 만났다.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으로 지칠 수도 있었는데 두 자매는 남한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좋았던지 지친 기색을 비추지 않았다. 이야기들 하던 동안 그들의 얼굴에 맴돌던 무언의 미소가 아직도 선하게 그려진다.

우리가 만났던 두 자매는 1998년과 2002년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종교 활동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이웃조차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단동 땅에 나와 찬양하며 성경공부들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이기 때문에 혹여 사실이 알려지는 날에는 그들의 가족들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된다.

흔히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던 고립된 북한과 전혀 다른 북한을 모습들을 우리는 두 자매의 이야기들 통해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도 여권이 발급이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쉽게 외국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이면 여권이 발급된다. 또한 가족 중에 화교출신이 있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여권을 발급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우리가 만났던 두 형제가 그렇다), 여권을 발급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300달러에서 350달러까지 받아가며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남녀노소 불문으로 발급을 해주는 북한 역시 물질만능주의임을 인식하게 만든다). 여권을 발급받고 나서 2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돈만 있으면 1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동까지의 이동수단으로는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신의주까지는 기차들 이용하고 다음으로는 단동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게 된다(으레 짐작으로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의 경로들 이용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이곳까지 나오는 경비로는 50\$ 정도가 든다. 주로 외국에 친척을 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자본을 얻어오라는 명목으로 출국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한국의 모든 실정들 알 수가 있다. 고깃배들 이용하여 CD로 제작된 한국의 동영상들이 곳곳에 배급되듯이 분배되고 있다. 독재체재라고해서 자유가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있는 자만의 누리는 특권이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의 꼬마들이 3초에 한 명꼴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 들었다. 아무리 시장경제로 몰아선 북한이라지만 강냉이밥에 요동치는 배들 잠들게 하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사람들과 강냉이밥조차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 실정이라고 했다. 배급주의와 공산주의가 막을 내린 북한이라지만 민주정치가 아닌 김정일의 주권아래 있는 공산권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종교로 자신의 인생이 탈바꿈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만큼은 김일성,

김정일은 하늘이고 곧 우상이다. 당연지사 하나님의 존재를 전연 알 수가 없다. 두 자매들 통해 우리는 그들의 종교생활에 대해들을 수 있었다.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진화론이 전부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북한은 부모의 말이라면 복종하며 순종해야 하는 그들의 풍습이 존재하고 있었다(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부모와 자식을 죽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 여파에 의해 자식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처럼 성경찬송을 펴고 할 수 없다. 그들은 단동을 오가며 외웠던 성경구절과 찬송을 조그마한 목소리로 불러가며 예배를 드린다. 창문 너머로 이웃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들은 단동에 체류해 있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보내준 쪽복음(손바닥만 한 크기의 구절성경)을 몰래 가지고 다니며 읽는다(참고로 그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새로운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섭리들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점은 동일하게도 자신의 아픈 부위가 심리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치유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자신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며 기도하던 목사님의 도움이 컸다는 말을 내비쳤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도제목을 나누기로 했다. 그들의 기도제목의 우선순위는 단연 북조선 잘살기(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그리고 자신의 아픈 부위의 치유, 가족의 건강과 삶이다. 나는 늘나 자신의 충족을 먼저 채우는 기도를 했다. 하지만 북한의 사람들은 자신의 배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그간 해왔던 탈북선교나 지하선교는 복음과 차단되어 오히려 남조선과 북조선과의 대치국면(對峙局面)만을 만들게 될 뿐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1시간가량의 만남을 정리해야 했다. 센터를 뒤돌아 나오면서 그 안에서 나누었던 말들이 자꾸 가슴에 사무쳤다. 어느 북조선 자매가 이런 말을 했다. “북조선 사람들은 남조선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기에 동일이 된다면 복음으로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방이 동일되겠지요.” 또 사역 목사는 이런 말을 했다. “가장 큰 선교의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비전을 가져라. 혹여 이 만남이 여행의 순간이었다면, 선교를 꿈꾸며 돌아가라.”

나는 이곳에 와서 나와는 다른 별개의 사람으로 세상을 잘못 택한 가엾은 사람들이란 생각 말고 무슨 생각을 했던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랐던가. 그리고 그들의 중심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하나님이길 간절히 기도했던가.

압록강을 가로지른 단동 건너편으로는 신의주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과 천진난만하게 물장난치는 꼬마들은 우리가 탄 유람선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들의 모습이 김정일의 각본에 짜여진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저들을 향해 섬 없이 사랑을 건네주고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새로 만든 압록강 철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는 중국공안과 북조선의 일꾼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북으로 들어서는 열차와 중국으로 나가는 트럭을 보았다. 비록 지금은 화물과 북조선 사람만을 싣고 북으로 향하는 열차지만 우리의 섬 없는 기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 싣고 신의주로 들어서는 기차가 생기리라 믿으며 아픔의 역사 끝자락에 서서 기도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보았던 같지만 다른 노을과 해돋이. 그 태양의 빛과 속도는 OK GOD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 열방의 우선이 북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본다.

4박 5일의 짧은 여정 속에서 5가지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기억하며 우리는 힘찬 발걸음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이 보고서들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이 중국에 가서 북한 소속인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경험을 하였다. 특히 숨어 있는 탈북자들이 "당신이 나들 만나는 것은 추억이지만,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은 기적입니다"라는 말을 청년들은 오랫동안 잊지 않고 되뇌었다. 이 단기 선교의 최대의 수확은 대학가의 운동권에서 말하는 진보적인 통일관과 전혀 다른 복음적 통일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몽골 단기 선교

마천중앙교회 청년회는 2007년 단기 선교지로 몽골의 칭기즈 칸의 고향인 몽근머리트로 정하였다. 2007년 7월 30일(월)부터 8월4일(토)까지의 기간에 102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어린이 캠프사역, 장년성경공부사역, 독거노인 사역, 나무울타리 보수, 청소, 주소 달아주기, 교육 사역 등을 실시했다.

이번 단기선교는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지도교역자와 임원들이 2007년 1월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였다. 본대가 도착하기 전 6월25일부터 8월4일까지 6명이 먼저 가서 사역준비를 하였다. 이 선발팀은 이혜실을 팀장으로 하여 우정운, 김성희, 홍지연, 배미선, 차민한이 파송되었다. 그리고 본대가 도착하여 대대적인 사역을 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5일부터 8월29일

까지 후발 팀 6명이 남아서 전도된 교인들을 훈련하고 가르쳤다. 후발팀은 팀장 이해실을 중심으로 신정원, 김지연, 임정욱, 나영호, 이경희가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 단기선교를 위하여 청년부는 6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준비하였다. 그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표 4>와 <표 5>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4> 단기선교 6월 준비사항

6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4	5	6	7	8	9
			주빌리 코리아			선발팀결성 식G6+G7헌 신예배
10	11	12	13	14	15	16
몽골어 재시험,사 역팀별 OT 성*사 시작		선발팀비자 서류	수요기도회 & 사역팀별 모임	G2 노숙자피딩	몽골을 위한 세계선교 기도회	청년부 예배 선발팀 모임
17	18	19	20	21	22	23
언어훈련	선발팀 특별새벽기 도		수요기도회 &사역팀별 모임		몽골 문화원 선발팀방 문완료	사랑 더하기 선발팀 모임
24	25	26	27	28	29	30
언어훈련 새생명축 제봉사	선발팀몽골 출발		수요기도회 & 사역팀별 모임	G8 노숙자피딩		청년부 예배 과제제출완 료

<표 5> 단기선교 7월 준비사항

7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여권, 경비완료 언어훈련	2	3	4 수요기도회 사역팀별 모임	5	6	7 몽골문화원 방문완료 청년부 예배
8 러브 몽골리안1 언어훈련 단체티제작	9	10	11 수요기도회 사역팀별 모임	12 노숙자 피딩	13	14 청년부예배
15 러브 몽골리안2 언어훈련 여권제출	16 ---2주--- -	17 사역팀별 ---동안--- -	18 사역최종 점검 ---매--- -	19 ---일--- ---	20 ---저--- -	21 청년부예배 ---녀--- -
22 몽골어기말 교사 몽골비자완 료---8시--- -	23 한주간특별 새벽기도 ---전--- -	24 ----- - ---체--- -	25 사역팀별 모임 ---준--- -	26 노숙자 피딩 ---비--- -	27 ---모--- -	28 청년부 예배 ---임--- -
29 청년부헌신 예배	30 저녁 8시 교회집합 12시 출발	31 몽골	1 몽근	2 머리	3 트	4 서울

청년회가 몽골에 가서 사역한 내용과 참여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표 6> 몽골 몽근머리트 사역 및 담당자 (1)

사역팀명	리더십	사역내용	사역팀장	팀원
어린이 캠프 사역	팀장: 신성운 전도사 헬퍼: 노미정/유은선	성경공부	노미정	장홍숙, 이윤영, 홍혜민, 서명주, 김지연, 이연주, 박지연, 장진아, 박선영, 임현주, 조해정, 김효진
		찬양을동	서현옥	권은혜, 하선영, 장혜영, 최예본
		행정	유은선	신정원, 송희주, 주신애, 서지현
		데코	이희경	노혜원, 이은미, 송혜경, 방승호
		동원사역은 모든 팀원들이 다같이		
대민 봉사 사역	팀장: 신종복 전도사 헬퍼: 홍정연/정종완	독거노인	홍정연	이효숙, 김성희, 정은진, 윤보감, 한수정, 임정욱
		동네청소	정종완	서형주, 송수호, 김주희, 김용희, 박설혜, 김혜진
		주택주소	신종복	장혜주, 임혜경, (차민한), 백인경, 이미영, 권우미
		동네사워장	오욱조	오목주, 나영호, 손호기, 이은선, 최승희, 홍지연
		나무울타리	이 용	이학선, (이기범), 김규호, 이명자, 김혜미, 진유리
문서 사역	팀장: 정영해 부장님 헬퍼: 신혜주	편집	신혜주	고요한, 김은희
		기록	배미선	이영미
		촬영	이진욱	박극요
교육 사역	팀장: 이혜실 헬퍼: 우용희/우정운	성경공부 스태프	이혜실	우용희, 우정운, 김영숙, 노효주
		건반레슨	(하정림)	이다희, 임희진, 임혜린
		기타레슨	이상화	조병춘, 김태현
본부 사역	팀장: 최성열 목사 헬퍼: 이은영/서현주	회계	이은영	
		통신	서현주	
		동역		알탄지맥 선교사님 외 15명(울란바트르 대학생)
		식사	박송례	윤경옥, 이남숙, 김숙자, 박을례, 허영옥, 이종란, 김진숙, 변경애, 조순자, 임미영, 최신현

<표 7> 몽골 몽근머리트 사역 및 담당자 (2)

문화 찬양 사역	팀장: 심소아 전도사 헬퍼: 최명덕	싱어	장혜영	차민한, 서현주, 이기범, 송수호, 이연주, 홍지연, 김용희
		연주팀	하정림	박극요, 김태현, 하선영
		워십&부채 춤	최명덕	서현옥, 하정림, 한수정, 노혜원, 송혜경, 이미영, 임현주, 조해정, 최승희, 백인경, 주신애, 서지현, 김지연
		드라마	심소아	오옥주, 이명자, 조병춘, 이용
		태권도	임정욱	이학선, 김태현.
		문화 찬양 사역은 다른 사역과 중복 가능		

2007년 청년회의 몽골 단기선교는 여러 가지로 마천중앙교회 선교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들 낳았다. 첫째는 청년회뿐만 아니라 장년부까지 참여하는 선교였다. 장년들이 물질만 도운 것이 아니라 직접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둘째는 마천중앙교회 청년회의 규모에 비해서 많은 수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활동하였고, 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하나가 되어 준비과정에 참여하고 도왔으며 국내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다. 셋째는 현지 교회들 실질적으로 도왔다. 교회가 너무 오래 되고 협소하여 넓은 장소로 이전하도록 도왔으며 건축에 참여하였다. 무엇보다도 마을의 숙원 사업인 우물을 파는 것을 마천중앙교회가 당회에서 결의하여 실천하였다. 미화 15,000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교회가 우물을 관리하게 되면 마을의 2,000명의 주민들이 영혼의 생명수뿐만 아니라 육신의 물까지 먹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청년회원 중에서 후발대로 끝나는 것이 아쉬워 1년 정도의 시간을 헌신하여 교회학교를 섬기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마천중앙교회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한 단기 선교활동이 펼쳐질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몇 년을 지원하고 또 다른 곳을 개발하여 떠날 것이다. 더욱 성장한 모습을 통하여 동시에 여러 곳을 지원하고 파송할 수 있을 것을 바라본다.

3. 선교학교

마천중앙교회는 개척선교학교(FRONTIER MISSION SCHOOL)가 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마천중앙교회 개척선교학교는 본 교회 선교목사 신승철 목사가 주관하여 매년 3-6월에 저명인사, 교수 등 국내외 유명 강사들이 초빙되어 이루어지는 단기 선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척선교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의 의식을 고취시키며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세워졌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남아있는 이상 예수님의 오심은 계속 늦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성도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각 선교단체의 전문가들과 현지에서 직접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강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생생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 개척선교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선교에 순종하는 동역자들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개척선교학교(FRONTIER MISSION SCHOOL)를 통해서 교인(성도)들에게 먼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되었는가?”를 가르친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기까지는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희생한 미국, 불란서, 스코틀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성도들,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받지 못한 지구촌 각지에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우리가 선교의 빛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하는 분명한 선교의식을 심어준다.

개척선교학교의 특징은 젊은이들뿐 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포함한 교회 중직자들이 다 참여 한다는 것이다. 또 단순히 강의로 끝나지 않고 현장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 기념관, 양화진 선교사 묘지, 연세대, 새문안교회, 경동교회, 제주도 이기룡 기념관 등 한국 교회의 전래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잠겨있는 명소들을 방문, 견학하여 어제와 오늘의 선교 현장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화진 선교사 묘지 현장 교육은 본 교회 협동 목사로 선교 동원가이며 기독교 한국 전래 전문 연구자인 이용남 목사가 가르치고 있다.

4기와 5기의 프로그램은 <표 8>과 <표 9>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8> 4기 프런티어 선교학교

월/일	주제	제목	강사	소속
3월 13일	주제	개회예배	박보범 목사	선교학교교장
3월 20일		미션액츠	이용남 목사	WMC대표
3월 27일	선교도전	21세기 선교전략	김영동 교수	장신대 선교학교수
4월 3일		하나님의 선교	신승철 선교사	펠리펀 선교사
4월 10일	선교정보	전문인 선교	연진숙 간사	TMI
4월 17일		선교에 대한 헌신	최성열 전도사	선교학교담당
4월 24일	선교헌신	이슬람 선교	주누가 선교사	GO 협력선교사
5월 1일		선교와 세계관	장경철 교수	서울여대교수
5월 8일	선교훈련	미전도 종족 선교	한정국 선교사	AAP대표
6월중		민다나오 MFTC	신승철 선교사	

<표 9> 5기 프런티어 선교학교

주	월/일	주제	제목	강사	소속
1주	4월 16일	선교도전	개회예배	박보범 목사	선교학교장
2주	4월 23일		하나님의 비전	최성열 전도사	선교학교담당자
3주	4월 30일	선교정보	전문인 선교	연진숙 간사	UPMA
4주	5월 7일		이슬람 선교	이만석 선교사	장로교 통합측 선교회
5주	5월 14일		미전도 종족	조명순 선교사	합신 선교부
6주	5월 21일		미션액츠	이용남 목사	세계선교공동체
7주	5월 28일	선교헌신	북한선교	유은수선교사	북한선교
8주	6월 4일		선교에로의 도전	신승철 선교사	펠리펀 선교사
9주	6월 5일		수료예배	박보범 목사	선교학교장
6월중 베트남 선교훈련					

선교학교는 매주 토요일에 모였는데 그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표 10> 선교학교 시간표

시간	내용	담당자
2:40-3:10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자
3:10-4:10	1강	강사
4:10-4:20	휴식	개인별
4:20-5:40	2강	강사
5:40-6:00	조모임	조장

개척선교학교는 2001년에 제 1기는 모든 강의를 마치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제 주도 이기풍 선교관을 견학했으며, 제 2기부터는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단기선교훈련을 떠났다.

개척선교학교를 통하여 마천중앙교회의 중직자들과 전 교인들이 선교 마인드를 가진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개척선교학교는 지역사회의 성도들에게도 열린 강좌를 실시하였기에 많은 타 교회 성도들도 참여하여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다.

4. 필리핀 선교학교

마천중앙교회는 필리핀 마닐라 근처인 다스마리나스에 선교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 선교센터들 통하여 매년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 와서 훈련을 받고 있다. 마천중앙교회 신승철 선교목사가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다양한 선교학교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가. MFTC(Mission Field Training Camp)

우선, 훈련목적은 선교훈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삶에서 그분의 온전한 주되심을 확립하며,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종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과업에 기도로, 헌금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응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훈련내용으로는 첫째, 단기선교예비학교(국내에서 훈련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둘째, 강의(필리핀을 알자, 팀 역할, 종족 정탐, 미전도 종족), 셋째, 다양한 팀 활동, 넷째, 3대 선교 기본 사역 RMW(R은 research로 정탐이고, M은 ministry로 사역이며 W는 worship으로 예배임), 다섯째, 동원자로 발표 및 수료 등이

다.

세 번째, 훈련일정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MFTC 훈련일정

	훈련 진행 내용	비고	이동수단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도착 ▪ 선교관으로 이동 후 취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교통수단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예배 ▪ CEBU 이동 ▪ 선상프로그램 강의-필리핀을 알고 사귀자, 활동-친구사귀기,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분담 후 모든 활동은 조별로 한다. ▪ 각 조의 모든 활동은 조원들의 팀 역할에 의해서 진행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크루즈급)
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역할 발표회 ▪ CEBU 도착(8시 경) ▪ 조별 CEBU 정탐 ▪ 정탐 후 민다나오 행 승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대형선박)
4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다나오(수리가오) 도착 ▪ MP(Mission Possible) ▪ 현지 예배 준비, 조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 조별로 부여된 미션을 팀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5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파송식, 현지 파송 ▪ 현지 정탐 ▪ 전략회의를 통해 현지사역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선교 기본 사역 'R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다름 (지프니, 오토바이, 버스, 보트 등)
6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사역 ▪ 가정방문 기도 ▪ 저녁 집회 인도 		
7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일 예배 참석 ▪ 중식 후 민다나오 선교관 집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다름 (지프니, 오토바이, 버스, 보트 등)
8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식 후 마닐라로 이동 ▪ 도착 후 파시코로 이동 ▪ 파시코 정탐 및 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선비행기
9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닐라 선교관 이동 ▪ 동원자료 발표 및 수료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방문한 지역의 기도제목을 수료식을 통하여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10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식 후 필리핀 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기

나. ROTC(Research & Outreach Training Camp): 단기어학연수 및 선교를 위한 미개척지 정탐훈련

첫 번째, 훈련목적과 관련하여, 방학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해외 단기어학연수 선교훈련프로그램인 ROTC는 6주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단순히 영어연수들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남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조사하기 위한 훈련이다. 선교의 전략적 방법인 '정탐'의 필요성과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고 직접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신앙훈련이 선교현장 가운데서 함께 진행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은 물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나들 향하신 계획을 발견, 구체적인 자기헌신의 시간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훈련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교육을 3주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 첫날 반 배정을 위한 테스트들 통해 각자에 맞는 소수정예 학급을 지정받게 된다. 수업은 주당 2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친절하고 경험 많은 전문 영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영어 수업은 주관적 사고 능력을 키워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향상시켜준다. 또한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현지인들의 생각과 문화들 배우고 조사하며, 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그 다음 공동체 신앙훈련으로 이로 인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배워가게 된다. 또한 정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의 목표들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헌신을 배우게 된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 회복시켜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각자들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강의(신앙, Mission Acts, 미전도 종족 정탐)로 1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신앙훈련은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2과목의 선교훈련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선교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 남은 과업을 위한 미전도 종족선교의 필요성을 인식, 현장에서의 실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강의로 진행된다.

필리핀 현지 정탐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주말마다 주계별로 진행되는 현지 정탐

은 필리핀의 역사, 문화, 종교, 사회, 경제 등 필리핀의 이모저모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으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탐의 방법들을 실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Research & Outreach(동남아)로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일정을 진행해 나갈 동남아 정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험심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여정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정을 통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자기 헌신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된다.

다. PKTC(Promised Kids Training Camp): 단기 어학연수 및 선교훈련

우선, 훈련목적은 방학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해외 단기어학연수 선교훈련프로그램인 PKTC는 3주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돕는다. PKTC는 영어교육의 목적만이 아닌 영어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어학연수 외에 예배와 신앙훈련이 선교현장 가운데서 함께 진행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은 물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훈련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교육으로 프로그램 첫날 반배정을 위한 테스트를 통해 각자에 맞는 소수정예 학급을 지정 받게 된다. 수업은 주당 2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친절하고 경험 많은 전문 영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영어 수업은 주관적 사고 능력을 키워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향상시켜준다. 또한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현지인들의 생각과 문화들 배우고 조사하며, 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오후 활동으로 점심식사 후 진행되는 교실 밖 수업으로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별 활동, 필리핀 명소 탐방, 관공서 및 학교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활동 프로그램은 외국의 풍물과 문화들 체험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현장학습으로 영어의 흥미는 물론 넓은 사고와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공동체 신앙훈련으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배워가게 된다. 또한 매일 드러지는 예배와

교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 맺게 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각자들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선교훈련으로 주말마다 선교현장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현지인들을 섬기는 시간과 3박 4일의 종족 선교정탐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 TMTC(Teenager Mission Training Camp): 비전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청소년캠프

첫 번째, 훈련목적으로 TMTC는 방학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해외 단기어학연수 선교훈련프로그램으로 3주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도우며 영어교육의 목적만이 아닌 영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품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어학연수 이외에 예배와 신앙훈련이 선교현장 가운데서 함께 진행이 되므로, 10대의 기간 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은 물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훈련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교육은 프로그램 첫날 반 배정을 위한 테스트를 통해 각자에 맞는 소수정예 학급을 지정 받게 된다. 수업은 주당 25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친절하고 경험 많은 전문 영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영어 수업은 주관적 사고 능력을 키워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향상시켜준다. 또한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현지인들의 생각과 문화들 배우고 조사하며, 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둘째, 다양한 오후 활동으로 점심식사 후 진행되는 교실 밖 수업으로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별활동, 펠리핀 명소 탐방, 관공서 및 학교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활동프로그램은 외국의 풍물과 문화들 체험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현장학습으로 영어의 흥미는 물론 넓은 사고와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공동체 신앙훈련으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배워가게 된다. 1박 2일의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배우고 또한 매일 드러지는 예배와 교제는 하나

님과의 깊은 관계들 맺게 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각자들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선교훈련으로 주말마다 선교현장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현지인들을 섬기는 시간과 3박4일의 종족 선교정탐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 UDTW(Upside Down The World)

첫 번째, 훈련목적은 다음과 같다. 1세기 바울 선교사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세상을 뒤엎는 자라고 하였다(행 17:6). UDTW는 선교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훈련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의가 실시되는데 그 내용은 신앙(생명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새로운 삶), 선교(Mission Acts, 미전도 종족정탐, 한국선교의 역사), 기타(영적 전쟁과 중보기도,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통독, 묵상)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선교, 유럽 및 터키 단기선교, 동원자료 제작, 보고서 작성 및 수료예배 등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 훈련은 4개월에서 6개월에 걸치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마천중앙교회 필리핀 선교센터에서는 이 훈련을 마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선교회 간사로 섬기게 되고 각 교회에 파견되어 선교정보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마천중앙교회에 모여 선교기도회를 가진다.

5. 선교 바자회

마천중앙교회는 2007년 현재 20개의 여전도회가 있다. 여전도회가 각 부별로 전도와 봉사와 친교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연합으로 행하는 가장 큰 행사가 있다. 그것은 매년 추석을 앞에 두고 하는 선교바자회이다. 많은 교회들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하지만 마천중앙교회는 고집스럽게 선교바자회를 실시한다. 기간은 대부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선교를 위한 바자회는 2달 전부터 계획하고 1달 전부터는 광고를 실시하여 먼저

입지 않는 옷이나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 받는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협찬할 수 있는 성도들의 기업을 섭외한다. 그래서 여전도회의 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선교행사가 되게 한다.

선교바자회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장이 되도록 준비된다. 싸고 풍성한 먹을거리는 이웃초청의 잔치를 만들고, 싸고 좋은 물건을 제공하며,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물건과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도부가 가장 좋은 장소들 차지하여 음료들 나누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신앙상담을 실시하여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사들 만들어 간다. 마천중앙교회 선교바자회들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6. 선교 기도회

주님의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한 노력이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못한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중보기도를 전략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선교현지에 대한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는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눅 10:2)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한정국은 *선교정발훈련 표준강의안*에서 미전도종족 선교에 있어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만민을 위한 구원 계획의 성취로서 중보기도를 원하시고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들 위해서(창 18:23-),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시 106:23), 다니엘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위해 중보하였다(단 9:3).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중보자를 찾다가 얻지 못했다(겔 22:30, 31)고 하시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중보를 원하시는 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들 통해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영적인 영역의 승리가 일차적인 이것은 기도로 얻게 된다. 아말

렉과 싸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출 17:11). 또한 여호사밧의 찬양과 기도들 통한 영적 무기는 침입하는 적의 군대들 대항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대하 20).

셋째,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충분한 기도로 행해진 연구 조사에서 나온다.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최초의 정탐군이었는데, 그 땅과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 그리고 전투 전략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스스로의 이해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들 통해 주셨던 지시하심을 의지했다.

넷째, 기도는 교회의 선교 사역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확산하게도 한다. 안디옥 교회의 다섯 장로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해 따로 세우도록 인도하였다. 또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성령에 의해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유럽)로 인도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총체적인 영적 전쟁의 수행은 선교 사역을 강화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모든 기도, 간절한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성령 안의 기도, 깨어서 항상 힘쓰는 기도 등을 강조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들 따라 전략적으로 기도할 것을 언급한 내용이다. 성령께서 예상치 않았던 상황들을 감지하거나, 영적인 실체들 독특한 은사나 방법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다각적으로 동원하는 일은 영적 전쟁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다.¹⁶⁵⁾

기도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사회 활동이다. 하나님이 직접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또 기도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들에서도 하나님은 영적 빛을 가져다주시고, 지속적인 사회적 변혁을 위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원수의 거짓 지배를 깨뜨려 나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들 변화시키고 미래들 변화시키시기 위해 기도들 사용하신다. 윌터 웅크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고 믿는 중보 기도자들의 몫이다...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필연성에 전적으로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며, 미래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같이 미래의

165) 한정국, *선교정탐훈련 표준강의안*, 198-199.

모습을 결정짓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갈망하던 새로운 현재인 미래들 소리쳐 구하는 중보 기도자들이다. 그들은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고 믿는다.¹⁶⁶⁾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천중앙교회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을 세계 선교 기도회로 정하고 있다. 신승철 선교목사가 매월 미전도 종족 중에 한 종족을 택하여 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제와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있다. 또한 마천중앙교회가 선교하는 필리핀 파시코 사역과 민나다오 원주민 사역, 베트남 선교사역, 인도·파키스탄 사역 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여름과 겨울 단기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한 달 정도의 집중적인 중보기도를 실시하고, 단기 선교기간 동안에는 가지 않는 성도들 중에 중보기도 헌신자들 모집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 선교 동원에 참여하게 한다. 2007년 102명의 청년들이 몽골 땅으로 단기 선교훈련을 떠나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기도제목은 아래와 같다.

복음으로 칭기즈 칸의 땅 몽근머리트를 정복하라. 13세기 몽골 부족은 초원에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미워하며 끊임없이 부족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칭기즈 칸이 부족을 하나로 결집시키면서 몽골은 대칸을 정점으로 지상 최강의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와 경제적 번영을 자랑하는 중국대륙을 유목민 최초로 평정한 몽골은 더욱 세력을 넓혀 유라시아 대륙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마 천재 몽골군을 당할 어떤 나라도, 군대도 없는 곳이 유목생활로 단련된 소수의 몽골군은 수억 인구의 유럽대륙을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칭기즈 칸은 청년들이 여름에 가려고 하는 몽근머리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세계정복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은 OK GOD 청년공동체가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칭기즈 칸의 고향 몽근머리트를 향해 나갑니다.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 청년들은 기도하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상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또한 공산치하에서 지치고 메마른 몽근머리트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할 때 온

166) Walter Wink, *Engaging the Power: Discernment and Resistance in a World of Domin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99. Winter, Hawthorne, eds., *미션 퍼스펙티브*, 110-111에서 개인용.

성도가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청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떠나는 단기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OK GOD 청년공동체

LOVE MONGOLIA 기도제목

- 1.하나님의 심장으로 몽골을 사랑하게 하소서
- 2.몽근머리트를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소서
- 3.몽근머리트가 집단으로 개종되게 하소서
- 4.몽근머리트에 든든한 교회와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 5.준비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6.모든 일정과 상황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 7.모든 장애와 어려움이 떠나고 사역에 행동을 주소서

이와 같은 세계 선교 기도회는 마천중앙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¹⁶⁷⁾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끊임없이 세계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게 한다.

167) Winter, Hawthorne, eds., *미션 퍼스펙티브*, 490. 데이비드 브라이언트(David Bryant)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다른 식으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가기 위해 커다란 인간적 장애물들(문화적, 정치적 등)에 직접 부딪침으로써 그 틈을 뚫고 막아서는 선교사들이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뚫고 '가거나' 아니면 '고국에 남아'서 공동체로서 희생적 사랑과 기도, 훈련, 재정 그리고 '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느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 대의가 그들의 삶의 통합시키는 최우선적인 일이 되었다. 제자들이라면 그래야 하듯이, 그들은 주님의 대위임령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활발하게 연구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셋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세계 비전에 의해 견고하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은 세계선교운동이라는 뜻에 빠졌다고 느끼면서, 그저 자기 본분을 다했다고 말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이 일 저 일을 해보는 좌절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품고 나서는 그 비전을 계속 간직하며 키워가기 원하고 주저없이 그 비전에 순종한다.

제 6 장

마천중앙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제안

본 장에서는 마천중앙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에 의한 목회철학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목회철학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성서적 선교 모델 교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할 것이다.

제 1 절 '선교적 교회론'¹⁶⁸⁾에 의한 목회철학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들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의 목회철학이 선교적 교회론에 의한 목회철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의 특성상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그 교회가 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단순히 개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목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가정만 돌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기대한다"¹⁶⁹⁾—을 물리쳐야 한다. 이 유혹을 넘어설 때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다.

지역교회는 선교의 모판이라고 한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사례는 선교

168) 임창복, 김영동, 김강덕, *21세기 교회의 선교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7), 이에 대해 이 책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교의론적 교회론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보며, 교회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로 이해한다. 자기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또 보내셔서 인간의 역사와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자기들 이해한다.

169)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1998), 434.

회 조직의 성서적 기초임과 아울러 지역교회 선교의 모형을 보여준다. 지역교회는 선교들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 선교 지원에는 선교사 파송, 기도, 재정 후원, 선교사 감독 등이 포함된다. 지역교회가 선교사들 파송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다.

헤럴드 풀러(Harold W. Fuller)는 교회 중심 선교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역교회 중심의 선교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몸으로서의 교회의 선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둘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활용을 통해서 몸을 세운다(엡 4장). 셋째, 제자화들 위한 책임을 강조할 수 있어서 선교사역의 결과 몸이 조직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넷째, 가시적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상에 드러내기 위해 선교사와 회심자가 함께 헌신할 수 있다. 다섯째, 전도와 목회적 돌봄을 이분화 하지 않는다. 여섯째, 교회의 주권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내선교와 해외선교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아울러 지역교회 중심의 선교가 가져올 수 있는 단점으로는 첫째,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회의 목주 가능성이 있다. 교회는 선교회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임을 잊어버림으로 선교회가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셋째, 교회 중심의 선교는 흔히 강한 교회 연합의 태도들 수반하므로 선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교회의 내적인 자기 관심에 의해서 선교사의 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 다섯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라는 선교관에 모호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 것도 선교가 아니다. 여섯째, 강력한 교회 중심적인 전망에 이르는 논리적 결론은 복음전도가 개종자들에게 오명을 안겨주게 되며, 복음전도의 중지들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일곱째, 교회 중심이 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교 대표부가 설 자리가 없게 될 수 있다. 여덟째, 교회 중심의 선교들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회들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을 연상하게 된다. 아홉째, 집사직의 행동은 교회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봉사의 요구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열째, 개인적 증거들 위한 책임은 공동체적인 교회의 우선순위의 강조들 잃어버릴 수 있다. 열한 번째, 몇 교파적인 선교회는 초교파적인 선교회 보다 더 교회 중심적인 관점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¹⁷⁰⁾

170) Harold W. Fuller. *Mission-Church Dynamic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0), 78-80.

이와 같은 장단점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선교적 교회론은 철저하게 목회자에게 우선적으로 달려있으므로 선교적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적 목회자는 먼저, 세상을 자기 교구로 삼는 사람이다. "이 교회가 나의 교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 나아가서 이 세상이 나의 교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요 10:16)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양들이 나가서 살아야 하는 한 지역의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한 목회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교사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선교사 지망생과 마찬가지로 유능하고 사랑에 차 있으며, 용감하고 희생과 모험을 감수 할 줄 알며 헌신적인 목사여야 한다는 뜻이다.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나 활동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는 선교적 활동에도 능동적인 목사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교적 목회자는 신자들에게는 물론 세속 사회에서조차도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는 말씀처럼 삶의 본을 보일 수 없는 사람은 선교적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선교적 목회자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 하는 사람이다.

선교적 목회자는 선교적 교회론에 의한 목회철학을 가지게 된다. 분명한 목회철학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해는 막대하다. 한국교회가 선교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기저기에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신의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선교사와 그 지역교회와의 관계성은 그리 친밀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즉 선교사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어떤 준비나 증보기도나 연결고리 없이 단순히 파송을 목적으로 선교사를 모시고 온다는 점이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들 가져오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무조건 파송만 하면 교회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한국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교계 신문에는 자기 교회의 선교를 선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송 선교사를 모신다는 광고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선별된 선교사는 그 지역교회와 전혀 관계성 없이 몇 개월 후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 선교사와 사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신앙적, 인격적 교류 없이 파송한다. 교회는 그 선교사의 영적인 총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단지 선교비들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 한국교회의 목회철학의 부제로 인한 선교의 문제점 중의 또 하나는 선교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을 정도의 후원이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즉 협력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얼마 씩(약 10만원 내외) 후원하는 생색 내기의 선교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색내기 후원을 하면서도 자기 교회의 게시판에는 마치 전액 후원인양 선교사의 이름을 실고 있는 경우는 허다하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제일 되는 관심은 교회 부흥일 것이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선교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흥은 선교들 위한 도구요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들은 선교적인 목회철학이 없이 선교는 나중에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교적인 목회철학을 가지고 출발하여 큰 부흥과 함께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전주 안디옥 교회의 주보에 나와 있는 실천 강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도가 된다. 둘째, 본 교우는 모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선교원(선교사)이 된다. 셋째, 주는 교회가 되어 해외선교와 농촌선교 및 특수선교에 주력한다. 넷째, 교회 재정의 60퍼센트 이상을 선교사역에 사용한다(십일조, 선교헌금 등). 다섯째,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여섯째, 모든 봉사직은 자발적이며 희생,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일곱째, 교회의 모든 사업과 집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력한다.

이제 지역교회는 교회가 가지는 전통적인 기능 - 교육, 봉사, 구제, 예배, 친교-의 영역 중에 하나로 선교들 취급하지 말고 선교들 중심으로 한 교육, 봉사, 구제, 예배, 친교가 일어나도록 목회철학을 세워야 한다. 모든 목적을 선교들 위한 의식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천중앙교회는 선교공동체임을 표방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초대교회가 중인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는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최우선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 철학에 따른 비전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들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사회와 세계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계속 성장하는 생명공동체가 된다"고 선포한다. 이와 같은 목회철학을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성서적 선교 모델 교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선교적 교회론에 의한 목회철학을 가진 교회는 구체적인 성서적 선교 모델 교회로 가야 한다. 교회가 바른 선교를 하고자 할 때,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교의 성경적 원리에서 선교방법으로 넘어가면 다소 불확실감을 느낀다.”¹⁷¹⁾ 그래서 4장에서 언급한 선교적인 교회의 대표로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리에 기초하여 마천중앙교회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하면, 첫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다. 둘째, 무엇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셋째, 선교를 적극적인 후원을 하는 교회였다. 넷째, 내외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교회였다. 다섯째, 끊임 없이 배우는 교회였다.

지금까지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가 실시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는 세계 선교 기도회, 단기선교, 선교학교, 필리핀 선교학교, 그리고 선교바자회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여 계속해서 바르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마천중앙교회가 새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 후보들 활용한 기도제목 나누기, 선교사 자녀 후원하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국내 선교프로그램으로서 존재선교와 다음 세대에 선교를 물려주기 위한 선교 영어반 운영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조성되어 있는 인터넷 선교를 개발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프로그램들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틀에 맞추어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171) Bavinck. *선교학 개론*, 95.

1. '하나님의 선교'¹⁷²⁾로서의 기도회

선교를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선교의 시작이 우리의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재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불신자들을 멸망에서 구출하는 자는 바로 우리”¹⁷³⁾가 된다. 또한 기도들 통하여 전 세계를 위한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세계 각국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다. “그는 그의 기도 속에 오대양 육대주에 살고 있는 믿음의 전 가족을 포함시킨다.”¹⁷⁴⁾ 그럼으로 교회가 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선교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이미 5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지금까지 마천중앙교회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을 세계 선교 기도회로 정하여 미전도 종족과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사들과 선교사역 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회들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선교의 불을 더욱 지펴기 위해서 기도회들 보강할 필요가 있다.

가. 청소년-청년을 위한 세계 기도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과 청년 중심의 기도모임이 필요하다. 기존 기도모임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관한 정보들 얻고 구체적인 필요들 위해서 기도하는 강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약점이 있다. 특별히 기도모임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수는 극히 적었다. 장년이 주류들 이루다 보니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코드가 맞지 않았다. 그에 따른 제안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모임이 필요하다. 이 기도모

172) 하나님의 선교는 1952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와 복음화 대회(CWME)에서 공식화되었다. 이 때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파송활동에 수용된다는 것이며, 세상도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통치에 관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날 선교의 역사들 보면 하나님보다는 교회 제도가, 성령보다는 인간이 주도하는 선교들 문제들 일으킨 것이 적지 않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굉장히 넓은 신학적인 의미들 담고 있다. 이 단락에서 사용된 이 개념은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주도하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73)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34.

174) J. Hebert Kane, *세계 선교의 오늘과 내일*,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71.

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찬양팀에 의한 예배인도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주보들 활용한 기도

모든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보들 활용해야 한다. 현재 마천중앙교회 주보는 6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한 면에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매일 읽어야 할 성경분량이 기재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면의 반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지면을 선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도제목과 기도의 응답을 실을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보의 다른 면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지에 관련된 사진과 정보와 기도제목을 올림으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다.

2. 기쁨으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전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의 일부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신약성경을 잘 관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우울한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즐거운 특권이자 열정과 소망이 가득한 모험이다.”¹⁷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자신들 속에 가두어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충만을 받자마자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고전 9:6)라고 고백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이나 의무감보다는 그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 1:8)고 당부하셨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어야 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천중앙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야 한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175) Winter, Hawthorne, eds., *미션 퍼스펙티브*, 75.

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세계 선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먼저 지역사회-특히 마천동과 거여동의 복음화들 위해서 가족총동원주일, 새생명축제, 전도팀을 통한 전도, 새 신자 예배 및 양육 등 다양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왔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앞으로 교회가 좀더 보완해야 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외국인 노동자 선교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수는 1억2천만 명으로 추산되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7년에 공식적으로는 70만 명, 2010년에 100만 명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들은 한국교회에 큰 선교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한편, 편견과 차별로 얼룩진 상처의 땅이 되기도 한다. 이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귀국한다면 '세계선교의 선두주자'를 꿈꾸는 한국교회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현지에서 만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지 모른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며 또한 한국 사회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식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맞이하도록 교육하는 일 등 총체적이며 대(對) 사회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선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내에 있다고 해서 이들을 단순히 국내전도 대상으로서 한국인에게 전도하듯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 문화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써 타문화권 선교 대상으로 인식하여 다가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랜 역사의 시간에 걸쳐 형성된 자기 고유의 문화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언어와 자기 종교적 신념이 있는 엄연한 타문화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선교는 이들 문화와 종교, 가치관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

구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마천동과 주변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 마천중앙교회에는 현재 몽골,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가족전도와 선교 개척 현장에서 선구자와 같은 인물로 쓰실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를 맞이했다.”¹⁷⁶⁾ 이들을 선교하는 것은 현지에 선교사들 파송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들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교회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가르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명절이 되면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고 여름에는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앞으로 이들을 전문인으로 훈련할 수 있는 선교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교회 내에 IT 기술자 등을 통하여 지식인인 이들에게 첨단 지식을 가르치고, 선교적 소명이 분명한 자들에게는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교향에 파송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 세울 것이다.

나. 존재 선교

기독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메시지의 신빙성이 입증될 수가 없다. “성경은 복음 전파를 따로 떨어진 독립사건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도 복음 전파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¹⁷⁷⁾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메시지의 위기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실천하지 않는 데서 오는 위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과 실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행위와 말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놓칠 수가 없다. 4세기 위대한 교수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삶을 통한 본보기라고 했다. 즉 “말은 행위를 설명하고, 행위는 말을 확증해 준다”¹⁷⁸⁾

176) 임창복, 김영동, 김강덕, *21세기 교회의 선교교육*, 317.

177) Bavinck, *선교학 개론*, 108.

국내 선교는 이제 선포적 접근보다는 다가오게 하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단순히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행위로 증명해야 한다. 복음은 행동을 통해서 훨씬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불신의 눈총을 따갑게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마천중앙교회는 매주 화요일에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하여 소녀 소년 가정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100가정 이상 매주일 직접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전달하는데 지역사회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회가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에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필요한 성금과 물품들을 먼저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재앙을 치유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교회는 갈수록 무너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예비학교, 부부 성장 세미나, 부모 교육 세미나, 결손가정을 위한 자녀 교육 세미나 등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에 열어 놓고 섬기게 된다면 좋은 선교 효과들 거두게 될 것이다.

3. 아낌없는 후원

선교는 선교지에 나가있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근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훌륭한 선교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선교사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내는 자들의 후원이 필요하다. 비록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들 그의 선교 방법의 일부로 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였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많은 교회와

178)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258.

사람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그의 선교사역 초기부터 그의 사역을 도왔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들 보내 섬길 방법을 찾아서 도왔다. 빌립보 교회는 “풍성하게 주었으며...정기적으로 헌금하였을 것을 시사한다”(빌 4:10).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빌 1:5)을 감사하게 여겼다. 바울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와 같은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선교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의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하다.

가. 선교 바자회

마천중앙교회 여전도회연합회에서는 추석을 앞에 두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바자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여전도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선교행사다. 선교바자회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장이 되도록 준비된다. 물건과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도부가 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상담을 실시하여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사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바자회에서 생긴 이익금으로 해외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왔다.

앞으로 선교바자회의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해야 한다. “바자회의 이익금이 단순히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선교헌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성도들이 알고 있을 때에 보다 자발적으로 후원을 할 수가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에 출석 중인 한 어린이는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털어 기꺼이 선교헌금을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매 주 아이들이 낸 헌금이 어디로 가는 지를 알려준 일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르완다에는 집도 없는 교인들이 있대, 그 애들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¹⁷⁹⁾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자회에서 생긴 이익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교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제시해야 한다. 자신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열매들 보고 만질 수 있을 때에 아

179) Jon Ferguson, Eric Bramlett, *(예배 혁신 프로젝트) 빅 아이디어* 김재영 역 (서울: 디모테, 2007), 34.

낌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할 수 있다.

나. 선교사 자녀 후원 프로그램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교육이다. 선교지들 떠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교육 때문이다.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쌍방의 의사소통과 그들의 필요들 채우려는 실천 가능한 작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돌봄이 시작된다.

교회학교와 연계하여 선교사 자녀들의 연령대들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부서에 속한 아이들을 돌보듯이, 생일, 어린이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들 맞이하면 조그만 선물과 카드들 보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책과 비디오들 지속적으로 보내줌으로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현재 발행하는 주보에 아이들의 사진과 현지들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사진과 함께 기도제목들 실어줌으로써 또래 아이들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들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부서 게시판에 아이의 사진과 기도제목들 붙여놓고 매주 기도해준다. 아이들이 안식년이나 혹은 비자문제로 잠시 입국을 하였을 때에는 선교지의 간단한 인사법이나 인사말, 간단한 식사예절 등을 MK로부터 배운다. 선교사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방학동안 한국 파송교회의 중고등부 친구들 중 2-4명이 선교지들 3-4주 정도 방문한다. 이들 통해서 선교사 자녀들과 방문한 친구들이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에 재입국했을 때 역문화 충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방문한 아이들은 선교지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교사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들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위한 가장 귀한 후원은 파송교회가 지속적으로 MK교사들 보내는 것이다. 선교사 자녀들의 모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OMF선교회 MK 담당 안은숙 선교사는 모국어들 문화들 흡수하는 뿌리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글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마음의 언어인 모국어들 상실할 경우, MK들은 튀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들 보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¹⁸⁰⁾ 왜냐하면, 한글에는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유

180) 안은숙, “선교사 자녀 교육의 신들메들 고쳐 매며,” *OMF 동아시아 기도지 TCK 사역자*

지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삶의 모든 국면이 담겨 있다. 모국어들 상실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마음의 언어로 접속해 들어가는 패스워드의 상실을 의미하며, 동시에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있어야 할 서로 간의 깊은 감정표현의 배출구가 막히는 것을 말한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모국어의 지속적인 효과적으로 공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회와 연계하여 끊이지 않고 교사들이 공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기질상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선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선교사의 경우에는 사역이라는 커다란 짐이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청년부와 연계하여 MK교사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헌신을 하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부족한 공부, 특별히 국어와 국사 그리고 자신의 전공과목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유기적인 상호네트워크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성령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몸은 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이 감당하면서 동시에 모든 지체들이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유지되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들이 모여 각자의 사역들을 하면서 상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혈액이 순환되어 각 지체들이 상호 유익을 주고받아야 하듯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각 부서들이 서로 도우며 상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유기적인 상호네트워크가 이루어질 때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마천중앙교회는 지금까지 펴리편에 있는 선교학교와 상당히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해왔다. 그 결과 5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마천

칼럼, 2004년 겨울호. 같은 글에서 모국어들 잃어버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1. 자기 존중감 결여, 2. 불안정감, 3. 정서적 배출구가 막힘, 4. 가족 간의 마음의 공용어 상실과 가족 연합의 끈이 느슨해짐, 5. 부모가 자녀에게 모국어로 신앙 교육을 할 기회의 제한 6. 모국어로 자녀들 훈육할 기회 상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앙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필리핀 선교학교 사역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 문화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필리핀 선교학교를 위한 마천중앙교회에 있는 문화학교와 연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천중앙교회에서는 2003년부터 '푸른 산 문화센터'¹⁸¹⁾란 이름 하에 어린이 발레반, 어린이 합창단, 태권도 선교단, 그리고 각종 악기반 등 다양한 문화반을 운영하여 교회 성도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수년간의 지속적인 연습을 통하여 어린이 발레반과 태권도 선교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부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공연을 할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 교회에서 예배시간과 그 외에 특별한 공연시간을 마련하여 필리핀 현지인들의 문화적인 필요를 채우고,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선교지를 답사하고 선교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들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준비 기도 모임이 필요하다. 그 기도 모임을 통하여 선교의 중요성과 전반적인 선교지의 상황 등 그리고 자신의 필요들 기도를 통하여 공급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질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미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회와 문화학교에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 장기 선교사들 위한 단기사역 프로그램 개발

잘 훈련되고 준비된 단기선교 참여자들이 때로는 장기 사역자들보다 더 효과들

181) 2003년에는 '청산 문화센터'란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2005년부터 '푸른 산 문화센터'로 개명되었다.

거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들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모든 단기선교들 통하여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사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별히 행사성 단기선교나 장기 선교사와 연계없이 이루어지는 단기선교사역은 선교에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선교지에 있는 장기 사역자들의 사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사성 단기선교가 가져오는 폐단은 지난 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피랍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 단기선교사역을 준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단기 선교팀은 그 나라를 곧장 떠나지만 그 나라 선교현지에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하는 것은 선교사들임을 명심하여 선교사들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선교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¹⁸²⁾

이들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선교가 단기선교팀의 필요들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장기선교사들 위한 단기사역이 되어야 한다. 현지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현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장기사역자들의 지휘에 따라 현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마천중앙교회는 그동안 고등부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단기선교들 꾸준히 진행시켜왔다. 그리고 그 단기선교들 통하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선교의 필요성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단기선교들 통하여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사역이 장기선교사들의 사역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교회가 중점적으로 선교들 하고 있는 지역이 필리핀, 몽골, 그리고 베트남이다. 가급적이면 단기 선교들 이 지역들 중에 한 곳으로 가고, 가기 전에 사역하고 있는 장기 사역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단기선교가 끝이 난 이후에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한다. 이들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서 알게 되어 복음을 전했거나 친분을 맺은 사람들과는 잊지 말고 편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들 가져야 한다. 전하고 온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교제들 통하여 선교자적 삶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단기선교 사역이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182) 임창복, 김영동, 김강덕, *21세기 교회의 선교교육*, 324.

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민족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다. 선교 영어반 운영

현재 한국교회의 화두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의 선교는 다음 세대들 교육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한국의 부모들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필요들 채워주며 선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영어로 접근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큰 호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교회 안에 영어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자라나는 새싹들로 하여금 세계관을 넓혀 주는 것과 같다. 단순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영어 암송을 통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어려서부터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효과들 가질 수 있다.

지역교회의 주중에 남아 있는 공간과 교회 안에 잠재해 있는 인력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큰 효과들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 인터넷 선교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었다. “텔레비전이 출현하여 사회를 원자화시켰다.”¹⁸³⁾ 교회가 지역주민들과 관계들 맺는 일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발달한 인터넷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외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은 생활방식 뿐만 아니라 교회사역과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들 요구한다. 선교지의 상황이 갈수록 불안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언제 추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 건물 건축하고 유지하는 건물 중심적 선교사역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역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는 데

183)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34.

“인터넷 선교는 바로 모든 크리스천을 사역자로,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서로 동역하고 섬기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¹⁸⁴⁾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파가 가지는 유용성에 대해, 인터넷 선교학 강사인 서장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파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에서 비유 기법을 선택하여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복음을 폭넓게 그리고 현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달한다면 현재 인터넷만큼 탁월한 수단은 없을 것이다.¹⁸⁵⁾

인터넷은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라디오나 TV와는 달리 쌍방향의 정보 전달 매개체이다. 인터넷은 마치 잘 뿔여진 로마의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로마는 자신들의 정복지들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속하게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인터넷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복음전파에 있어서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현지인이 최소한 인터넷에 연결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면서, 서로 쌍방향의 대화들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가능케 된다. 또한 정보화 시대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지역과 세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변화의 흐름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그 새로운 전략을 거의 동시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지역과 같은 곳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인터넷상에서의 예배참여와 양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복음전파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사역의 단점 또는 한계점으로는 기술기반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의 만남 이상의 끈끈한 친교효과는 기대할 수

184) 서장혁, *인터넷이여, 선교로, 부흥하라*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 27

185) Ibid., 55.

가 없다. 인터넷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한 번 사용된 콘텐츠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함으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강자의 집중력과 능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은 익명성의 특성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자신을 숨기 채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어떤 정보를 취하거나 활동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인터넷을 통한 복음전파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복음을 포함한 정보들 전달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기대감에서 제작되었던 교회 홈페이지들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을 통한 복음사역의 유용성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각 교회는 전문적인 인터넷 선교사의 양성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마천중앙교회도 다른 일반교회들처럼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설교를 제공하고 교회 내부의 커뮤니케이션(교회행사 광고와 게시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교적관리를 하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현재 교회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의 중요성과 찬양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인터넷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사역자들 청빙해야 한다. 청빙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처음부터 전임 사역자들 청빙할 수 없다면, 현재 교회 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전임 사역자들 청빙하여 전반적으로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바른 선교를 위한 교육

바르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비결, 그리고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철저한 신앙교육에서 찾고 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른 교육을 제공할 때, 교회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들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 특별히 쉘마들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정신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왔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더불어 그것의 가르침을 동반하셨고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 선포 및 전도와 더불어 그것의 가르침을 동반한다. 만약 복음 선포와 가르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가르침은 일종의 윤리교육으로 전락되고 기독교교육은 복음이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율법교육이 될 것이다.”¹⁸⁶⁾ 교육을 통하여 교회는 바른 선교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선교사들이 배출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헌신된 기독교 가정이나 헌신된 영적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선교는 어느 한 부서나 한 개인이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복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선교를 감당하려면 온 교회의 성도가 선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선교 비전 학교가 필요하다. 이 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선교교육이란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선교에 관한 통전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선교 비전 학교에서 1단계에서는 선교의 성서적인 기초가 선명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2단계에서는 선교의 역사와 방향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현재 국내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실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4단계에서는 단기 선교, 중기 선교, 장기 선교에 참여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지역 교회가 성과 위주로 선교사들 모집하여 파송하기 보다는 이러한 비전 학교를 거친 사람으로 하여금 단기 선교를 참여하게 하고 그 후에 중기 선교사로 선발하며, 중기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 자 중에서 장기 선교사를 선발하여 파송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186) 임창복, 김영동, 김강덕, *21세기 교회의 선교교육*, 80.

제 7 장 결 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멈출 줄 모르고 치솟던 교회성장이 갑자기 마이너스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상향 직선 화살표에서 하향 곡선으로 방향을 바꿔서 선을 긋기 시작함으로 너무 빨리 성장 둔화 현상이 오고 말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¹⁸⁷⁾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18세기만 해도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유럽 교회가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만 가고 예배드릴 성도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당의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치 학생이 없어 통폐합하는 한국의 도서 벽지 학교처럼 되어 가고 있다.¹⁸⁸⁾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거룩한 교회 의식들이 세속 행사의 영향을 받아 물질위주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전주안디옥교회의 이동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 안에서 목사취임, 장로임직 및 취임, 집사안수, 교회당헌당, 근속기념식 등 성스러운 행사가 많이 거행된다. 그러나 그 감격과 기쁨을 지나치게 물질로 표현하는 경향이 짙어간다. 물질은 마음의 표현이기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물질의 표현만이 축하의 방법인 것으로 고정화 된 점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임직 받는 분들도 교회에 큰 기념품을 해 놓아야 한다는 부담감, 따라서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된다는 세속적인 용어가 범람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의식구조를 갱신해야 할 때이다.¹⁸⁹⁾

187) 김승연, *서구 교회의 몰락과 한국 교회의 미래 상: 유럽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42.

188) Ibid., 41.

189) 이동휘, "선교를 위해 교회의 구조를 갱신한다." *월간목회*, 1993년 7월호, 94.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현실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복을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특권으로 여기고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선교지향적인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국 교회는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들 위하여 지역교회의 선교 활성화들 위한 프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적인 사명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들의 삶속에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면 “와서 우리들 도우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선교의 손길을 뻗치고 더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역사들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논문은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선교활성화들 시킬 수 있는지를 마천중앙교회의 사례들 통하여 연구하였다.

2장에서 선교의 동기와 목적을 다루었는데 먼저 선교의 정의들 여러 학자들을 통해 살펴본 후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내렸다. 그리고 선교의 순수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들 말했다.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교회설립과 사회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 이 네 가지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교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들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선교에 헌신하려는 자나 교회는 선교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3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 살펴보았다. 선교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으로서 성경에 철저한 근거들 두고 있다. 신구약 성경은 '선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도 선교에 대한 근거들 찾을 수 있는데 모세 오경에서 이방 나라와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을 볼 수 있었고, 역사서들 통하여 구원이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특히 시편은 온 땅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을 수 없이 강조하고 있다. 선지서의 선교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성취될 사건을 끊임없이 예언한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나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셨다. 신약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선교의 책이다. 신약의 4복음서는 선교적 설교의 산 기록이며, 사도행전은 선교적 교회의 모

델이며, 바울의 서신서는 선교의 기록이다. 본고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와 특별히 바울의 선교 이해를 다루었다.

4장에서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들 살펴보았다. 먼저 교회의 성경적인 이해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찾아보았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선교공동체로만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 지역교회들 이해하기 위해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와 그 당시에 행한 선교에 대하여 연구했다. 지역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교회가 선교적 본질에 충실할 때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형성되어 간다. 지역교회의 선교적 모델을 찾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와 빌립보교회와 데살로니가교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초대교회의 선교지향적인 모델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적인 적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5장에서는 이 모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천중앙교회의 선교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먼저 간략하게 마천중앙교회의 역사를 다루었다. 그리고 마천중앙교회 선교사역으로서 교류부의 단기선교와 청년부의 단기선교를 소개했다. 마천중앙교회가 매년 실시하는 선교학교와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행하는 선교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또한 마천중앙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행하는 바자회와 매월 진행되는 선교 기도회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최상의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장에서는 마천중앙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제안을 했다. 먼저 선교적 교회론에 의한 목회철학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서적 선교 모델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선교 비전 학교 운영과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국내 전도들 위한 존재 선교와 다음 세대들 위한 선교 영어반 운영과 전 세계를 향한 인터넷 선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결론적으로 *선교사 열전*을 쓴 루스 터커(Ruth A. Tucker)의 교백을 소개한다.

1950년대 북 위스콘신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 어느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C&MA의 선교사였던 델머 스미스(Delmer Smith)가 해외선교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를 하였다. 천막 속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13세의 한 소녀가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해외선교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어떤 것도 그녀에게서 선교의 비전을 단념시키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였다. 성경대학, 기독교 예술협회 활동, 대학교, 결혼, 가정, 교수. 잇따라 해야 할 일이 꼬리틀 물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교사가 되어 외국에 가겠다는 그녀의 꿈은 더욱 현실과 멀어졌다.

그녀가 어렸을 때 집에서 4.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녀의 사촌인 발러리 스텔레치(Valerie Stellrecht)란 소녀가 살았다. 그들은 똑같은 학교와 교회들 다녔다. 발러리 역시 해외선교의 소명을 느끼고 헌신했다. 그녀 역시 선교사 사역의 준비를 위해 성 바울 성경대학에 입학했으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보다 해외선교의 비전을 앞세웠다. 발러리는 성경대학을 마치자마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에콰도르로 가서 오늘날까지 C&MA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두 여자의 일생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두 처녀는 똑같이 해외선교의 소명을 느꼈다. 발러리는 왔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남아 이 책을 쓰고 있다.¹⁹⁰⁾

이 고백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모두가 소명에 따라 선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준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역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효과적인 선교 프로그램의 활성화들 통하여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190) Ruth A. Tucker. *선교사 열전*. 박해근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644.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강문석. *선교신학총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 김승연. *서구 교회의 몰락과 한국 교회의 미래 상: 유럽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김승호. *10년 후 한국교회*. 서울: 에큐메니칼 연구소, 2005.
- 김연태. *빌립보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김영동. *교회들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3.
- 김용국. “선교의 성서적 근거.” *기독교 사상*. 1982년 6월호.
- 박근원. *전도와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86.
- 박삼수.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서울: 기문출판사, 1987.
- 박형룡. *교회론*. 서울: 은성문화사, 1974.
-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8.
- 신동우. *선교학: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3.
- 안은숙. “선교사 자녀 교육의 신들메들 고쳐 매며.” *OMF 동아시아 기도지 TCK 사역자 칼럼*. 2004년 겨울호.
- 옥한흠. *평신도들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7.
- 이계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전망사, 1981.
- 이동휘. “선교들 위해 교회의 구조들 갱신한다.” *월간목회*. 1993년 7월호.
- 이상근. *신약성서주해 사도행전*. 대구: 성광사, 1991.
-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_____. “복음과 교회.” *목회자료*. 1995.
- 이용원. “선교적 관점에서 본 회심과 개종.” *선교와 신학* (2002).
-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서울: 도서출판 교회목회, 1995.
- 임창복, 김영동, 김강덕. *21세기 교회의 선교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7.
-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서울: 은성출판사, 1995.
- 하용조. *성경과 목회*.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4.
- 한국선교 신학회.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한국일. "선교와 회심." *선교와 신학* (2002).
- _____.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2. 번역서적

- Avis, P. D. L.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이기문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7.
- Barclay, W. *사도행전*. 정혁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 Bavinck, J. H. *선교학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Blauw, Johaness. *교회의 선교적 본질*. 전재욱, 전호진, 송용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Boer, H. R. *단편초대교회사*. 백성호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 Bosch, David J. *세계를 향한 증거*.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 2000.
- _____.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61.
- Glasser, A. F. and D. A. McGavran. *현대선교신학*. 교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_____.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임윤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Green, M. *현대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Griffiths, M. *선교사역에의 헌신*. 권행자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6.
- Harrison, E. F.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신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Hedlund, Roger E. *성경적 선교신학*. 송용조 역. 서울: 서울 성경학교, 1990.
- Kaiser, Walter C.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의도." *목회와 신학*. 2002년 8월호.
- _____. *구약성경과 선교*.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Kane, J. H.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이재범 역. 서울: 나단출판사, 1988.
- _____. *세계 선교의 오늘과 내일*.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_____. *기독교 세계 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Kummel, W. G. *신약정경 개론*. 박인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Ku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Muller, Karl. *현대선교신학*. 김영동, 김은수, 박영환 역. 서울: 한들, 1997.
- _____ and Theo Sundermeier. *선교학사전*.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역. 서울: 다산글방, 1999.
- Newbigin, Lesslie.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1998.
- Nissen, Johannes. *신약성경과 선교*. 최동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Ferguson, Jon and Eric Bramlett. *(예배 혁신 프로젝트) 빅 아이디어*. 김재영 역. 서울: 디모데, 2007
- Pöhlmann, Horst G. *교의학*.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Robertson, A. T. *신약원어 해설 3: 사도행전*. 서울: 요단출판사, 1984.
- Schlatter, A. *사도행전 강해*. 김희보 역. 서울: 종로서적, 1994.
- Snyder, Howard A.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Thomson, Robin. *세계선교출발*. 이득수 역. 서울: IVP, 1992.
- Tucker, Ruth A. *선교사 열전*. 박해근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Van Engen, Charles.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 Verkuyl, J. *현대 선교신학개론*.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6.
- Vicedom, G. F. *하나님의 선교*.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Winter, Ralph D. and Steven C. Hawthorne, eds. *미션 퍼스펙티브*. 정옥배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0.

3. 외국서적

- Boer, Harry R. *Pentecost and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75.
- Harrison, E. F. *The Apostolic Church*. Grand Rapids: Willai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McMirnie, W. S. *The Search for Early Church*. Wheaton: Tyndale, 1978.
- Metzger, B. M. *The New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Nashville: Abingdon, 1965.
- Newbigin, J. E. Lesslie. *The Household of God: Lectures of the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Friendship, 1954.
- Peters, George.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Moody, 1972.
- Young, Edward J.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Oxford: James Clark Co., 1958.

Vita of
Min Sang Cho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Gumi-Simin Presbyterian Church, Gumi

Personal Data:

Birthdate: Apr 06, 1964
 Marital Status: Married to Soon-Im Sa, with three sons
 Home Address: #150-13 Simpyung-dong, Gumi, Gyungbuk
 Phone: 054-463-3339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May 09, 1996

Education:

Th. B.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0
 M. Div.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4
 Th. M.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3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8

Personal Experience:

11/2007 to Present: Senior Pastor of Gumi-Simin Church, Gumi
 1996 to 10/2007: Assistant Pastor
 of Macheon-Joongang Church, Seoul